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논문

중국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술서 번역 수용 비교연구

- 번역자 번역 태도를 중심으로 -

2016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이 함 별

중국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술서 번역 수용 비교연구
— 번역자 번역 태도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준 웅

이 논문을 언론정보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이 함 별

이함별의언론정보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12월

위 원 장 강명구 (인)

부위원장 홍석경 (인)

위 원 이준웅 (인)

초록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꾸준히 교류해 왔다. 또한 21 세기에 들어와서 중한 양국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에 더 넓은 사회적 문화나 지식 공유를 기대할 수 있다. 양국이 꾸준히 교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본적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사회적 제도, 사회적 문화, 경제 발전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점이 있고, 이런 차이가 양국 간 이해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과 대응의 차이이다. 양국이 외국 문화 수용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번역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근대사는 서양 지식의 수입, 즉 서적 번역과 번역서의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양세욱(2012)이 따르면 서구 지식의 번역 수용 과정에서 동아시아 삼국이 자국의 근대 사회 질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미 형성된 질서가 새로운 문물을 수입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9 세기말 20 세기 초의 번역은 이후 근대화와 최근의 세계화 단계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번역의 양은 과거보다 더욱 많다. 일반적 주제 영역의 서적 뿐만 아니라 개별 학문과 전문화된 영역에 있어서 번역도 활발하다.

이러한 배경이 있어서 본고는 우선 중한 양국의 특정 학술분야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서양 지식의 수입 및 수용에 실제로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 양상은 어떠하고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또한, 양국의 번역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번역자 신분 구성과 역자의 글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양국의 번역자의 차이과 번역 수용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특히 양국에서 유학 경험 있는 학자들이 번역 수용에게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유학생 출신 번역가의 역할을 확인하였고, 지식 수용 과정에 그들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중한 양국 지식 수입 및 수용 과정에 나타난 차이를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였다. 이런 양국의 학문별 차이분석 과정를 통해서 중한 양국의 학문 발전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주요어: 번역 수용, 지식 수용, 비교, 문화 차이, 유학생, 커뮤니케이션 학술 번역서

학번: 2013-22436

목 차

제 1 장: 문제 제기

1.연구 배경 1

2.연구 목적 및 연구 의의 5

제 2 장: 번역서의 중요성과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경계

1.중국의 근대역사로 보는 번역서의 중요성.....9

2.중한번역서 통계 현황.....13

3.번역을 커뮤니케이션학 이론의 토대에 바라보는 것.....18

4.커뮤니케이션학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20

5.커뮤니케이션학의 새로운 영역들.....25

제 3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문제

1.선행연구검토.....29

1) 번역 및 번역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 학술 번역서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연구문제 설정.....37

제 4 장: 연구 방법

1.내용비교 분석의 어려움 및 극복 방법.....47

2.연구방법 및 연구 대상 설정.....55

3.분석유목 코딩 58

제 5 장: 연구 결과 및 비교 분석

1.중한 학술 번역서의 기본 수용 양상 및 특징.....74

2.비교 분석 및 연구 결과.....81

1) 번역 수용 기본 양상 차이 결과 및 분석

2) 번역자 번역 태도 중심으로

제 6 장: 연구 결과와 양국 간 차이의 원인

1.연구결과의 요약.....114

2.중한 외래 지식 수용 양상의 차이의 원인 추론.....115

3.결론.....124

참고문헌.....128

한중 번역서 부록.....132

표 목차

〈표 2.1〉 2001 년~2010 년 한국 번역도서 총 도서 종수에 차지하는 비율.....15

〈표 2.2〉 2005 년~2010 년 중국 번역도서가 총 출판 종수에 차지하는 비율.....15

〈표 2.3〉 2006 년~2010 년 한국 번역출판 종수의 종류별 차지하는 비율.....17

〈표 2.4〉 2006 년~2010 년 중국 번역출판 종수의 종류별 차지하는 비율.....17

〈표 4.1〉중국 G 류 분과.....53

〈표 4.2〉 한중 학술 번역서 수집 절차 및 내용.....56

〈표 4.3〉커뮤니케이션 연구 주제의 세부 주제 분야.....64

〈표 4.4〉 미디어 연구 영역에 세부 주제 분야.....65

〈표 4.5〉저널리즘 연구 영역에 세부 주제 분야.....65

〈표 4.6〉번역자 번역 수용의 태도 분류.....73

〈표 5.1〉 중국 연도별 역총의 상황.....78

〈표 5.2〉중한 연도별로 학술 번역서 권수.....82

〈표 5.3〉중한 나라별 학술 번역서 권수.....86

〈표 5.4〉교과서 빈도와 비율.....88

〈표 5.5〉 연구 종류별 따른 분류.....92

〈표 5.6〉커뮤니케이션 연구 세부 분야별 권수 비교.....94
〈표 5.7〉미디어연구 세부 분야별 권수 비교.....98
〈표 5.8〉저널리즘 세부 분야별 권수 비교.....100
〈표 5.9〉 방송 세부 분야별 권수 비교.....101
〈표 5.1.0〉중국 해외 유학 귀국 인원 통계.....107
〈표 5.1.1〉중국과 한국의 번역자 번역 태도 비교.....110

그림 목차

〈그림 3. 1〉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33

제 1 장: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꾸준히 교류해 왔다. 20 세기 중반 냉전의 결과로 교류가 끊긴 시기가 있었지만, 1992 년 중한수교로 또다시 새로운 교류의장을 열었다. 21 세기 들어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국가 간 교류가 빈번해졌으며 중한 양국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1978 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 1981 년 '자비 유학 정책' 발표 후 중국 유학생 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한국의 문화, 경제, 신문, 방송, 관광, 전자, 통신 등 사회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국 간 학술과 교육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朴光海, 2007; 每周韓國, 2006).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 유학생 중 한국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중국에서는 한국 유학생의 수가 가장 많다. 전공별로 보면 언어를 넘어 문학, 역사, 철학, 법학, 경제, 경영, 기술 등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김도희, 2008). 양국에 대해 서로 알아가고 배우려는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한 양국 간 폭넓은 사회적 문화적 지식 공유가 기대된다.

양국은 현재 사회, 문화적으로 이미 많은 교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로 오해도 발생한다. 주로 양국의 사회 제도, 사회 문화, 경제 발전 등 모든 면에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이런 차이가 양국 간 이해의 장벽이 되고 있다. 특히 양국의 근대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은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념과 체제가 달랐으며 그에 따른 문화 예술과 학술의 발전 양상 역시 다르게 발전해왔다. 20 세기 말 본격화된 글로벌화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양국 모두 본격적인 글로벌화 정책 추진으로 여러 문화에 대한 수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새로운 문화적 수렴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라는 제도 차이, 그리고 정치체계, 사회, 문화 제도에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화의 양상도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전개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두 나라가 지난 세기 동안 사회 발전 과정에서의 역사적인 문화 차이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즉 역사적 차이가 현재 양국의 글로벌화 모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과 대응의 차이이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인접 국가의 문화에 대한 수용방식에서 동일성도 있지만 차이가 특히 두드러졌다. 한자 사용이 그 대표적 사례다. 19 세기 중국과 한국은 모두 일본의 번역서를 대량 중역하였고 일본에서 번역된 한자를 그대로 수용했는데 이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2 차 세계대전 이후 양국은 일본 한자 번역에 대한 수용이 많이 달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중섭(2013)의 중국 지식인의 일본 한자 번역어 수용에 대한 고찰한 연구에는 "중한일의 한자 교류는 2 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나 한국은 새로운 사물의

명칭을 도입할 때 대부분 음역 방식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심지어 원래 한자로 의역한 개념도 다시 음역으로 바꾸기도 한다"고 밝혔다. 일본 번역어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한국과 많이 달랐던 것이다. 그 결과 서구의 문물을 개념화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언어와 개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개념에서 차이가 나면, 그에 기반을 둔 이론과 형태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순 한글화 경향도 중요한 차이의 요인이 된다. 1995 년 이전까지 한국의 신문이나 잡지에서 한자를 섞어 썼지만, 그 이후부터는 한자를 한글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이 점 역시 중한 양국이 외국 문화 수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중한 간 외국 문화 수용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동아시아 번역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근대사는 서양 지식의 유입, 즉 서적 번역과 번역서의 이해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양세욱(2012)은 동아시아 삼국의 근대화를 연구하면서 번역이 근대화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논한 바 있는데 그는 "중국과 일본은 번역이라는 지적 작업을 통해 서양을 이해하고 근대라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했다. 번역은 동아시아에서 근대를 형성해 가는 중요한 과정이자 방법이었다. 번역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서로를 참조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 한국은 때로는 중국을 통해, 대부분은 일본이라는 필터를 통해 근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한일 삼국이 모두 번역 수용을 통해 자국의 근대 사회 질서를 구축했다는 논지에 따라 그는 "동아시아의 근대는

'번역된 근대 (translated modernity)'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번역된 근대'라는 논지에 따르면, 서양의 지식을 번역 수용 과정에서 동아시아 삼국은 자국의 근대사회 질서를 형성하였으며 그때 형성된 질서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19 세기 말, 20 세기 초의 번역은 그 이후의 근대화와 현재의 글로벌화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번역 규모는 과거보다 더욱 많아져 일반 주제 영역의 서적뿐 아니라 개별 학문과 전문 영역 번역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나타나는 중한 간 학문 영역별 번역 차이는 과거의 '번역된 근대화' 과정, 근대화를 통한 개별 학문의 전개과정,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화 과정의 차이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21 세기 중한 간 번역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번역의 양적 및 질적인 차이는 두 나라의 전문적 지식 발전의 차이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번역을 통해 서구 문화에 대한 수용과 필터 과정을 인정하면 학술서 번역이 해당 학술 분야의 발전에 갖는 의의를 추론할 수 있다. 학술서의 번역에는 특히 개념에 대한 번역이 필수인데, 이런 개념은 해당 분야의 이론과 형태에 대한 이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학술서 번역 분야와 규모에 대한 선택 역시 해당 분야가 다른 학술 분야에 비해 얼마만큼 진지하고 심각하게 수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즉 학술서 번역은 일반 서적 번역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다른 분야의 분야별 발전 양상을 드러낸다.

따라서 21 세기의 중한 간 서양 서적, 특히 학문분야의 학술서 번역 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중한 양국의 해당 분야에 대한 학문 발전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중한 간 학술 문화적 교류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한 간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교류의 기반이 되는 학문 분야별 지식의 도입과 축적을 검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양국이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서양 학술서 번역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두 나라의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동일성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문화교류를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서양문화에 대한 도입 및 수용을 비교 연구해야 한다. 일단 양국이 특정 학술 분야별 서양 지식 도입 및 수용에서 실제로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이가 있다면, 그 양상은 어떠하고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중한 양국의 학문 발전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한국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외국 학술 서적 번역의 차이를 검토하는 데 있다. 커뮤니케이션학은 20 세기 신생 학문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및 정보통신의 발전을 반영하는 최신 학문

분야이다. 중한 양국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은 전통적 학문 영역과 구분되는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언론학, 미디어학, 커뮤니케이션학 등 새로운 이름의 학술적 영역을 형성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런 학술 분야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외국 커뮤니케이션 학술 서적의 번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라도 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서적의 번역 과정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학의 학술 서적의 번역이라는 학술 행위를 필터로 중한 양국이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현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키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이 외국 서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국서적 수용 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즉 단순한 번역서적 선정의 차이인지, 아니면 번역자 지위 또는 사회적 역할에 의한 차이인지, 또한, 어떤 자세로 번역서를 선택하고 번역하는지 등에 대해 비교 연구해야 한다. 또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밝힘으로써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요인은 자국의 사회 문화인지를 연구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차이가 번역 과정 중에 일어난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차이들이 향후 양국 문화적 차이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유추해야 한다. 결국 이 연구는 중국과 한국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학술적 번역서를 연구대상으로 중한 학술적 수용의 차이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번역을 위해 선정한 서적의 분야는 누가 선택했는지, 그리고 누가 번역했는지는 물론, 어떤 자세로 번역했는지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연구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한 양국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학술 번역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양국은 어디에서, 무엇을 수용했는지를 근거로 각자의 외래 지식의 수용 양상을 제시하고 비교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차이가 존재다면 그러한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려고 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번역자 신분 구성 및 역자의 글의 내용 분석을 통해 양국의 번역자의 다른 점 및 번역 수용 태도의 차이를 찾아보고 그러한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특히 양국에서 해외유학생들이 번역 수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유학생 출신 번역가의 역할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신생 학문의 발전에 번역이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학은 20 세기 초에 생성된 젊은 학문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사회 전체에 확산되었으며,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발생한 이론이 일반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에 침투된 커뮤니케이션학을 대상으로 중국과 한국에 '번역된 근대화'를 공유하고, "번역된 근대"의 근대화 배경을 공유하고, 번역 실무를 많이 하는 두 나라의 번역 양상이 같은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번역이 신생학문의 발전에 미치는 국가별 차이와 그 영향력을 연구할 수 있다. 두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의 학술서를 많이 수용했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분야를 수용했는지, 어떤 태도로 수용했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둘째, 중한 간 커뮤니케이션

분야에는 번역서에는 차이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런 공통성의 원인을 추론해봄으로써 외래 지식 수용에서의 공동의 기반은 무엇인지 연구해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양국이 인식에 관한 공통성을 기반으로 이해의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제 2 장 번역 수용의 중요성과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경계

이 장에서는 '번역 수용의 중요성과 의의'를 제시하기 위해 중국의 근대역사 사례와 중한 양국의 수용 번역서가 전체 도서 종수에서 차지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번역과 커뮤니케이션학의 관계"를 설명한 다음, 커뮤니게이션학 학문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찾아보고, 커뮤니케이션학의 새로운 영역들을 알아보자 한다. 이를 통해 번역의 사회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전반적인 양상을 제시하겠다.

1. 중국 근대 역사로 보는 번역 수용의 중요성

중국 근대 역사에 일어났던 이정표적인 두 사건은 모두 외국 지식의 번역 및 수용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첫 번째 사건은 중국 근대사의 시작이다. 1840 년 제 1 차 '아편전쟁'의 발발은 중국 근대사의 시작이다. 아편전쟁의 실패로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양의 선진 지식을 주목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외래 지식을 수용하고 자신들이 속한 봉건 사회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반항하기 시작하였다. 1860 년 중국 청나라의 '양무운동 (洋務運動) '[1]으로 정부에서 외국에 유학생을 보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양 자본주의 사상을

[1] 양무운동 (洋務運動) : 1861~1894 년까지 중국 청(淸)나라에서 일어난 자강 운동이다. 청나라의 증국번(曾國藩)·리홍장(李鴻章) 등은 태평천국운동과 애로호사건등에 자극받아,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을 내세우며 근대화 운동을 꾀하였다. 이들은 유럽의 새로운 문물을 적극 도입하고, 내정·군사·과학·통신등을 개혁하였다. 그러나 양무운동은 표면적인 기술의 모방으로 끝났고, 청·일 전쟁의 패배로 좌절되었다.

포함한 수많은 외국 서적들이 중국에 유입되었을 뿐만아니라 파견 유학생들이 서양 서적들을 번역하여 중국 사회에 전파하였다. 그 후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과거 (科擧) 시험를 포기하고 서양 지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얼마 후 1889 년 '무술변법 (戊戌變法) '[2] 이 일어났다. 무술변법의 주요 내용은 "서양에게 배워라! 과학문화를 제창하라!정치, 교육제도를 개혁하라! 농·공·상업을 발전시켜라!"이다. '무술변법'을 통해 중국은 근대화를 향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1911 년 10 월 10 일 우창(武昌)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혁명인 '신해혁명(辛亥革命)'이 발발했다. 신해혁명은 중국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중국 근대사의 시작으로 불린다. 당시 중국은 봉건 사회를 이탈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길을 잠시 걸어보았다. 그 시기 청나라에서 유학생들을 서양에 보내지 않았다면, 중국은 서양의 선진 문명을 접하지 못했을 것이며, 선진 지식의 번역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중국 근대사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의 발자국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점은 번역 수용이 사회 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두 번째 사건은 중국 현대 문학의 전신이자 근대 문학의 변혁을 가져온 '백화문(白話文)' 운동으로 20 세기 초 서양 교육을 받고 돌아온 중국

[2]무술변법 (戊戌變法) : 전쟁패전과 그에 따른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중국 분할로, 젊은 독서인층(讀書人層)은 망국의 위기감을 절감하였다. 그들은 패전의 경험에서, 유럽의 무기·기술만을 도입하려는 양무운동(洋務運動)의 한계를 깨닫고, 전통적인 정치체제·교육제도 개혁으로서 부국강병을 실현해야만 중국이 근대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유학생들이 번역 열풍을 일으킨 문학계의 대규모 운동이다. 신해혁명 후 작가들은 예로부터 사용했던 이해하기 어려운 '문언문(文言文)'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이 읽기 쉬운 '백화문'을 사용하여 수많은 문학작품을 탄생시켰다. 이 운동은 중국 사람들의 독서 습관을 바꿔놓은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다.

대표적인 작가는 루쉰(魯迅), 빙신(冰心) , 예썽토어(葉聖陶) , 주오즈칭(朱自清) , 라오서(老舍) , 마오둔(茅盾) , 쉬즈모(徐志摩) , 바진(巴金)등 이다. 이들 모두 유학 경험이 있었으며, 근대 중국의 문학사에 중요한 위상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인 동시에 번역가이기도 하다. 이들은 외국 문학 작품 번역을 통해 외국의 문화를 소개하였을 뿐만아니라 자국의 부족한 점을 바라보면서 중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위대한 작품들을 창작했다. 즉 일반 사람들이 읽기 어려운 '문언문(文言文)'을 이해하기 쉬운 '백화문(白話文)'으로 문학 창작을 했는데 그들이 중국 문학의 구성을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이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작가들이 번역수용을 통해 중국의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켰을지도 모른다. 중국의 상기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번역 수용이 한 국가의 사회 문화와 사회 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번역 수용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번역서에 담긴 사회적 영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문화이고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한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회 현상은 다른 나라의 사람이 볼 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점이 바로 문화의 차이이다. 이러한 차이를 야기한 원인이 바로 이데올로기이다.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고유 이데올로기의 방식으로 국민의 인식 속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번역 수용을 통해 지식과 문화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까지 심을 수도 있다. 중국 유명 학자인 치엔존쉰(钱存训) (1954 , 대운보어(戴文伯)역,1974) 가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 '근대 역서가 중국 현대화에 미치는 영향(近世譯書對中國現代化的影響)'에서는 1920년부터 1930년 중국에서는 신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러시아어로 된 변증법적 유물주의 관한 저서를 대량 번역했다. 그 저서들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소개한 저서들로 나중에 중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바로 번역 수용이 이데올로기를 심은 사례다. 번역자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것과는 반대로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이데올로기 영향도 받고 있다. 도최진(2008, P129)이 인용한 로빈스의 저서 중 "…번역을 포함하여 인간이 인식하는 모든 언어 현상은 모두 이데올로기의 제약과 영향을 받으며…"에서 이데올로기가 역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따라서 번역서는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킬 만큼 영향력이 크다.

번역 수용은 항상 목적이 있다. 국가가 일정한 시기 어느 한 가지 외국 저서의 대량 번역을 수용하는 것은 단순한 정신 고양 목적으로 보기 힘들며,

항상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회 변혁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번역 수용의 배후에는 한 국가의 사회적 변혁이나 제도적 변화의 의미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 수용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 목적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국가의 발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관점에서도 번역 수용이 중요하다.

한 시기의 번역서를 분석해보면 한 시대의 문화 변천 과정을 알 수 있으며 한 학문 분야의 번역서를 살펴보면 그 분야의 발전 동향을 알 수 있다. 상기 논술을 근거로 번역서를 통해 문화 이데올로기를 고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한 국가의 발전 상황도 연구해볼 수 있다. 심지어 번역 수용의 내용 분석을 통해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도 있다. 이상으로 한 국가에서의 번역 수용의 중요성을 서술하였는데 두 나라 번역 수용 비교 분석이 더 중요하다. 번역서의 고찰을 통해 국가 발전 상황, 현대 사회 질서의 구축 상황, 문화의 발전 등을 알아볼 수 있어 양국을 대조하는 것은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

2. 중국과 한국의 번역서 통계 현황

본고 진행의 기본인 번역 수용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양국 번역 수용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한 양국은 모두 번역 수요가 많아 번역 수용이 양국에 더욱 중요한 점에서 다음으로

현대사회에서 중한 양국의 번역 수용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출판연감」의 총 발행 종수에서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번역대국이다. 김진두와 김창옥(2012)은 연구에서 "저작권 수입을 통해 나타나는 번역 도서의 비중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통계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간 도서 세 권 중 한 권은 번역서일 만큼 번역 출판의 비중은 막대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OECD 30 개 회원국 가운데 번역서 발행량과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번역서 의존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힌다(백원근, 2005, p. 23)."

한국의 번역 수용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2001 년부터 2010 년까지의 번역서 출판 종수를 〈표 2.1〉 함께 제시하였다.(표 크기 때문에 2000 년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로 제시) 2000 년대에 들어 총 도서출판 발행 종수는 25,632 권으로 이 중 번역서의 출판 종수가 8,839 권으로 34%를 차지하였다. 21 세기 첫 4 년 동안 모두 35% 안팎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특히 2003 년에는 번역서가 출판 종수의 39%로 번역 출판의 고점을 기록했다. 2005 년 이후부터 도서 총 발행 종수가 급증(43,598 종)하면서 번역서가 처음으로 24%까지 떨어졌지만,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 번역서의 증가로 점유율이 다시 증가했다. 2010 까지 소폭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여전히 2001 년 대비 번역서의 출판 종수가 많다.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도서출판종수	25,162	27,126	26,290	27,527	43,598	45,521	41,094	43,099	42,191	40,291
번역서출판종수	9,680	10,444	10,294	10,088	10,695	10,482	12,321	13,391	11,681	10,771
전체도서에 번역서 점유율	38.47%	38.50%	39.16%	36.65%	24.53%	23.03%	29.98%	31.07%	27.69%	26.73%

〈표 2.1〉 2001 년~2010 년 한국 번역도서 총 도서 종수에 차지하는 비율

*주: 2005 년부터 만화포함

출처: 「한국출판연감」 2011

번역도서의 유입은 한국 사회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서점의 베스트셀러에서, 외국 번역서는 항상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 2005 년부터 2010 년까지 중국출판연감(中国出版年鉴)을 살펴보면 중국 도서분류법에 따라 전 분야의 번역도서가 전체도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표 2.2〉과 같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에서도 번역서 출판 비율은 증가세를 보인다. 2005 년 번역서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다가 2006 년에 감소하였지만, 그 후부터 2010 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2〉 2005 년~2010 년 중국 번역도서가 총 출판 종수에 차지하는 비율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도서출판 종수	221,489	232,904	246,909	274,520	300,892	327,520
번역서출판종수	14,012	6,271	6,725	9,954	13,286	14,865
번역서가 전체도서에의 비율	6.3%	2.69%	2.72%	3.63%	4.42%	4.54%

출처: 《中國翻譯年鑑》新聞出版總署

2005 년부터 2010 년까지 양국의 구체적인 번역서 종수를 살펴보면 2006 년부터 2009 년까지 한국의 번역서는 중국보다 많았다.

앞서 제시한 내용은 양국의 번역서 총 출판 종수를 제시한 결과다. 본고의 연구 대상이 커뮤니케이션학의 번역서이기 때문에 양국의 커뮤니케이션 번역서들이 속한 분야에 따라 종류별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율도 제시하고자 했지만 중국과 한국은 도서분류법이 서로 달라 저자는 종류별로 보다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즉 중국에서는 "중국도서분류법(CLC)"을, 한국에서는 DDC 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도서분류법 (KDC) 을 사용하고 있어 양국의 커뮤니케이션 도서 분류가 다르다. 대조가 어려운 점에서 양국의 커뮤니케이션학 도서에 비교할 수 있는 부분만을 발취하여 진행했다. 양국 커뮤니케이션 도서 배급의 구체적인 차이는 제 4 장 연구 방법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표 2.3〉과 〈표 2.4〉에서는 양국 커뮤니케이션학 도서를 포함한 종류별 도서 권수와 비율을 제시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을 포함한 번역서가 종류별로 전체도서에서 차지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두 분야의 "종류별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리했다. 양국의 두 분야의 번역서는 모두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한국 사회과학별 번역서는 2007 년까지 증가하였지만, 그 후 2010 년까지는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앞서 제시했던 전체 번역서가 전체도서에 차지하는 비율의 하락세와

일치하다. 그러나 2001 년부터 2005 년까지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증가세를 나타낸다는 점을 알 수있다.

〈표 2.3〉 2006 년~2010 년 한국 번역출판 종수의 종류별 차지하는 비율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총류별 번역도서종수	32	78	126	122	118
총류별 차지하는 비율	12.60%	15.14%	15.32%	15.16%	16.79%
사회과학별 번역도서 종수	1257	1433	1646	1528	1274
사회과학별 차지하는 비율	19.37%	25.69%	25.98%	23.57%	21.17%

중국의 경우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 C 류와 G 류의 번역서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점은 중국의 대부분 커뮤니케니션 도서는 G. 문화, 과학, 교육, 체육 류에 속한다. C 류와 G 류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기타 류 대비 G 류 번역서 증가 폭이 더 컸고 번역서 종수도 많았다. 〈표 2.4〉에 종류별 비율을 제시하였다.

〈표.2.4〉 2006 년~2010 년 중국 번역출판 종수의 종류별 차지하는 비율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C. 사회과학 총론	164	280	250	286	340
C. 류가 차지하는 비율	5.61%	8.18%	6.86%	6.96%	7.02%
G. 문화,과학,교육,체육	477	796	1658	1835	2367
G. 류가 차지하는 비율	0.55%	0.88%	1.73%	1.79%	2.13%

중국과 한국은 양국이 연도마다 추이가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 10 년간 번역서 비율은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중국의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대부분 번역 도서는 G 류로 분류되며, 한국은 300 사회과학에 분산되어있고 두 분야의 번역 도서비율은 모두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은 2010 년 소폭 하락하였지만 전체 도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3. 번역을 커뮤니케이션학 이론의 토대로 바라보는 것

번역은 쉽게 말하면 원본 텍스트를 타겟이 되는 문화권 언어로 전환하는 행위로 원본의 지식 내용을 다른 문화권으로 전파하는 것이 번역의 목적이다. 번역은 문학적인 의미와 정보 전달 의미를 모두 갖고 있으며 두 언어권을 거치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느 학문에도 종속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번역학 이라기 보다는 번역학 연구라고 많이 부르고 있다. 번역학 연구는 따로 분류된 학과가 없지만 문학학, 언어학, 비교 문화학 그리고 이제는 통역, 영화 자막 번역 등 영역에서 모두 번역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70 년대 문화 연구가 제기된 후 모든 학문이 사회과학과 연관되어 번역학 연구도 전통적인 문학학 연구 논문 "번역이 창조인가 (김경정,2007)", 언어학적 연구 "번역전략의 선택(이혜승,2008)", "번역 실천(韓子滿 , 2006)",

"좋은 번역이 무엇인가?(성초림, 2013)"등 같은 내용에 관한 연구에서 벗어나 문화 연구의 행열에 진입했다. 또한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음악, 영화, 문화 상품 등 여러 형태의 텍스트의 전환 수요로 번역량이 급증하고 있다. 번역학 연구를하는 학자들도 이러한 사회환경을 간과하지 않고 번역의 사회학적 배경에 대한 연구 시작하였다. 울프와 푸카리가 2007 년에 출판한「번역 사회학의 구축」*(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은 번역학 연구의 사회학적 연구 영역 진입을 상징한다.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연구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21 세기 완벽한 번역이론 체계의 구조와 보완을 위해 번역철학, 번역사회학, 번역 심리학, 번역미학 등 새로운 학과들의 파생이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파생 학문 외에도 번역 활동의 본질을 따져보면 번역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텍스트 번역은 전파를 위한 것으로 번역 활동은 정보 전달과정의 한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학의 일반 이론(5W 모델)은 번역학 연구에도 적용되는 점을 근거로 중국의 학자 뤼쥔(吕俊)(1997)은 번역학은 커뮤니케이션학의 분과라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토대로 번역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학 입장에서 본 번역자 주체성 연구",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본 번역의 수용자 연구" 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외래 지식 수용 및 전파 입장에서 번역의 수용은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기도 하다. 번역서는 외래 지식에 대한 수용이며, 학술번역서는 전문적인 연구와 지식의 확산이다. 번역자는 전문 지식을 해석해 독자에게 이해 기반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이종 문화의 경계에 서 있는 번역자는 커뮤니케이터로서 외래 지식 정보를 번역하는 과정이 바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연구 내용도 변화해야 한다. 오늘날 통신 기술이 발달한 미디어 시대에서 번역학 연구는 번역의 질에 관한 전통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는 동시에 사회학 입장에서의 번역 문화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번역학 연구는 번역 활동의 본질을 떠날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번역 활동이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제는 번역을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토대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대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학연구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즉 외래 지식의 번역 수용이라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수용 효과 및 커뮤니케이터 수용 태도의 비교 연구이다.

4. 커뮤니케이션학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본고의 연구 대상은 커뮤니케이션학 학술 도서이며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 학술 서적 번역 탐구가 주요 과제이다. 연구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20 세기 초 중복되는 학문들에서 생성된 커뮤니케이션학은 정보 전파

과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며, 전파자(송신자), 전파과정, 전파 매체, 수용자(수신자), 나아가 문화 연구를 통해 나타난 수용 효과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21 세기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화시켰고, 정보가 순식간에 전달되면서 모든 인터넷 사용자는 정보 전달자가 될 수 있다. 21 세기는 정보화 시대로 정보 커뮤니케이션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학은 짧은 시간 내에 빠른 발전을 이루면서 일반사회에 적용되는 많은 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발달에 힘입어 정보사회에서 미디어 사회, 디지털미디어 사회로 변천을 거듭하고 있다.

양승목(1999)연구 저서에서는 디지털 시대, 수용자는 수용자인 동시에 송신자이며, 정보전달자와 수용자가 정보생산자가 되는 21 세기 사회는 '편집(redaction)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송)신자와 수신자의 개념 대신, 구별이 따로 없이 수용자의 개념으로, 한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전통 매스 미디어(라디오, 텔레비전 등)를 대신해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뉴미디어(인터넷을 기반한 모든 미디어)로 변화하였다. 일반 커뮤니케이션 모드인 5W 모델에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새롭고 광범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5 개 요소의 정체성이 달라졌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나 다 발(송)신자가 되며, 방대한 메시지를 생성하고 가공하여 재생산한다. 다양한 미디어 생산도 가능해져 정보의 전달 과정 역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삶과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정보를 생성하여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다양해졌다.

20 세기 말 문화이론 제기를 시작으로 서양의 사회과학 학문계열에 문화 연구의 열풍이 풀기 시작하였다. 모든 학과가 문화연구 영역으로 들어와 사회학 기반의 연구를 시작하면서 사회과학 학문 분야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졌으며 학과 간의 연관성도 높아졌다. 커뮤니케이션학도 일반사회에 나타나는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문화 연구의 행열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특히 커뮤니케이션학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중의 삶인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미디어 문화 콘텐츠 생산 및 소비에 대한 문화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문화 콘텐츠 생성 및 소비 증가로 커뮤니케이션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 중심으로 변화된 오늘 디지털미디어 사회에서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디지털 미디어의 끊임없는 생산, 글로벌 교류 확대 등에 따라 곳곳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문화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학의 영역 확대, 문화연구의 제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분야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학의 경계가 어디까지일까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문을 들겠다.

매체 기술 발전으로 커뮤니케이션 현상 자체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 영역이 어디까지 인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한국 언론학 연구학자 양승목(1999)은 커뮤니케이션학은 제도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끈 반면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는 여전히 의문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언론학(자)의 과제는 제도적으로 언론학의 고유영역을 고수하는 동시에 어떻게 다른 학문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구축하느냐에 있으며 언론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학이 하나의 건전한 고유 학문으로 바람직하다면 영역 확대를 위한 발전 대신 수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제도적 성장을 발전시키는 대신, 깊은 이론체계의 건설이나 보완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근거로 커뮤니케이션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의 과제이고 전망이기도 하다.

문화 연구 제기 이후 점점 많은 학문 분야의 연구가 "커뮤니케이션학의 관점으로" 연구 문제를 제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학에 대한 수용이 기타 학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과학 커뮤니케이션, 번역 커뮤니케이션학, 정보 커뮤니케이션, 교육 커뮤니케이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조직간 커뮤니케이션 등 이다. 그중 새 학문으로 출시되는 분야도 있어 커뮤니케이션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답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중한 양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정기

간행물에 등재된 논문집을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동향,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의 논문들이 있다. 이런 연구 논문에서도 양국 모두 정확한 커뮤니케이션학 영역의 경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모두 커뮤니케이션학을 수용하고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사회 현상 중심의 연구가 대량 진행돼 있으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합한 이론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 모두 커뮤니케이션학 범위가 확정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두 나라 학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당 분야를 결정하는 영역 확대 흐름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학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커뮤니케이션학 서적들을 찾아본 결과 그 중 저우밍웨(周偉明)의 「중국 신문 전파학 도서정개(中國新聞傳播學圖書精介)」 책에서는 5,000 여 권의 서적을 수집 분석한 결과 "도서들을 알아보니 범위가 넓고 자료형이나 응용류 도서가 많으며 학과의 경계가 모호한 서적들이 많았다"고 말하였다. 결국 커뮤니케이션 서적의 분류 수집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점은 다른 학문 분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일부 학자들은 어렵더라도 커뮤니케이션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문의 한계나 경계선을 어느 정도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발전 상황 및 경계에 대한 질문을 커뮤니케이션학의 학술 도서의 분류를 통해 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외래

커뮤니케이션 학술 서적에 대한 수용의 양상을 연구하여 어떤 분야의 서적들이 동시에 번역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그 경계에 대한 규정과 확장을 알아볼 수 있다.

5. 커뮤니케이션학의 새로운 영역들

커뮤니케이션학 경계에 대한 정의적인 규정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커뮤니케이션 학의 주요 내용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지에 관한 기본 상황은 알아볼 수 있다. 본고 연구 대상인 번역서들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단계에서 전체 커뮤니케이션학의 틀을 알아보려 한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커뮤니케이션 현상 폭발적인 증가로 커뮤니케이션학의 경계가 넓혀졌을 경우, 문화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에서 다른 사회 과학 학문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교와 같은 연결 역할을 하게된다. 이 점에서 커뮤니케이션학문은 일부 전통적인 연구분야(예를 들어 뉴스연구, 매스 미디어 연구)를 문화연구의 시각에서 다시 보게 되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연구(정보, 미디어 사회)하려는 학문공동체가 생성으로 새로운 연구영역이 나타나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학문 확장을 연구한 대표적 논문은 김광재와 박종구(2011)의 연구가 있다. 그가 커뮤니케이션학의 혁신 확산의 지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995 년부터 2009 년까지 커뮤니케이션학을 대표하는 7 개 학술지(한국언론학보, 한국방송학보, 언론정보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광고학보, 미디어 경제와 문화,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에 게재된 혁신확산에 관한 논문을 수집하여 내린 첫 번째 결론은 "커뮤니케이션학 분야 혁신확산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분야는 미디어정책, 미디어 산업 및 소비자/수용자, 인터넷 및 이동통신, UCC 및 콘텐츠 이용/소비, 미디어 이용 및 수용의 효과 등 5 가지로 집약됐다"고 했다. 이 5 대 분야는 모두 새로운 분야로 사회의 핫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신 테크놀러지 혁명은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를 근거로 디지털시대의 커뮤니케이션학은 미디어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통신 테크놀러지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업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 내릴 수 있다.

두 번째로 '학문공동체 형성의 배경요인이 존재한가'라는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학위 취득 대학, 그리고 소속기관과 지역 등을 분석한 결과가 시사적이다. 혁신확산 연구 분야에서 학연 기반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학문공동체의 형성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점에서 연구자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같은 이유로 저자뿐만 아니라 서양 학술서를 번역하는 번역자도 지식의 전환 과정에서 수용의 방식을 결정해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분야 및 연구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혁신확산연구는 주로 연동된 학문의 확산 실적에 대한 분석이다. 학문의 공동체만 보여주었을 뿐, 정확하게 어떤 것이 커뮤니케이션학인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실제 분과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미국 ICA 의 분과를 따르면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분야는 사회과학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지금 ICA 의 분과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 미디어 산업 연구(Media Industry Studies), PR 연구(Public Relations), 신문학연구(Jounalism Studies), 인간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iton), 문화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Intergroup Communication), 조직 커뮤니케이션(Organizational Communication), 철학、이론 및 비판(Philosophy, Theory and Critique), 정치 커뮤니케이션(Political Communication), 언어 및 사회적 상호 작용(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통신 및 기술(Communication and Technology), 커뮤니케이션 법률과 정책(Communication Law and Policy),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변화(Global Communication and Social Change), 커뮤니케이션 역사(Communication History), 인종과 민족 커뮤니케이션(Ethnicity and Race in Communication), 어린이·청소년 및 미디어(Children, Adolescents and the Media), (Instructional and Developmental Communication), 환경 커뮤니케이션(Environmental Communication), 페미니스트 장학금(Feminist Scholarship), 게임 연구(Game Studies), 젠더연구 및 부코연구(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Studies), 헬스 커뮤니케이션(Health Communication), 비주얼 커뮤케이션 연구(Visual Communication Studies),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스포츠 커뮤니케이션(Sports Communication), 대중

커뮤니케이션(Popular Communicaiton),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연구(Moblie communication studies)등 총 28 개 연구분야로 분과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분과들은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를 규정하고 연구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다.

제 3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문제 제기

앞서 제 2 장에서 번역서가 학문 수용에서의 중요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학이 어디까지 발전해 왔는지를 알아보았다. 외래 도서 번역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경계, 기반 형성, 그리고 발전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번역 수용 과정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본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번역학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중한 양국의 외국 서적의 번역 수용 연구가 밝힌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겠다.

1. 선행연구 검토

1) 번역 및 번역가에 관한 선행연구

19 세기 번역학 연구에서는 주로 언어학과 문학학에서 번역의 질과 실천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해왔다. 대표적인 연구는 미국 번역이론가 로렌스 벤누티(Venuti, 1995)의 「번역가의 비가시성」(*The Translator's Invisibility*)에서는 번역자의 입장에서 문학 번역의 단계를 구분하고 문화 전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이질화 방법(foreignizing method), 즉 번역자는 최대한 원문의 표현 방법을 취하면서 원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동일화 방법 (domesticating method) , 즉 독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번역 도착국의 언어를 취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즉 이질화 방법이 직역이고 동일화 방법이 의역이다. 또한

번역전략에 관한 연구도 번역학연구 영역의 중요한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번역가의 번역 전략을 보면, 크게 저자 지향적인 '충실성'과 독자 지향인의 '가독성'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

중국의 경우 19 세기 말부터 20 세기 말까지 동일화 즉 의역의 방법을 많이 취해왔다. 그 당시 번역계의 번역유명인 옌푸(嚴複)의 '신(信)', '달(達)', '야(雅)' 번역의 이념을 준수해야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개혁개방 20 년 동안 서양의 번역 이론들이 중국에 대량 유입되면서 학계에서는 직역과 의역을 놓고 다시 토론하게 되었다. 21 세기 들어 점차 이질화 방법을 주도적으로 채택하면서 동일화 방법은 이질화가 어려울 경우 적절히 사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번역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번역 전략은 다음과 같다. 직역과 의역, 이질화 방법(foreignizing method)과 동일화 방법 (domesticating method), 그리고 영국 번역 이론가 피터 뉴마크 (Newmark, 1988) 제기한 시멘틱 방법(semantic translation)과 커뮤니케티브 방법(communicative translation)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번역이 좋은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왔다. 그러나 어떠한 번역이 좋은 번역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시대에 따라서 좋은 번역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인지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옌푸(嚴複)가 서양 저서를 문언문(文言文)으로 번역한 「천연론(天演論)」은 그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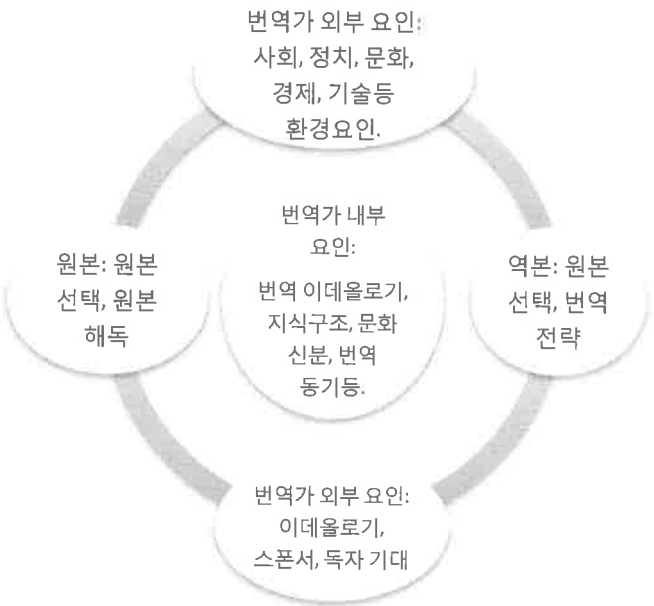
창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백화문(白話文)운동 후에는 대중이 읽기 어려운 번역작품으로 간주되었다.

19 세기의 대학에서 번역은 문학 연구에서 소외된 분야였다. 20 세기 말 통신 기술 발달로 전 세계가 대중 매체와 멀티미디어 세상으로 변화되면서 독자들은 영화, 음악, 책 등에 대한 여러 문화권의 최신 콘텐츠와 텍스트 공유 수요가 확대되었다. 이 시기 텍스트 위주의 번역 연구 부족으로 번역가 중심으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번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호리징(侯立靜)(2014)은 과거 전통 번역 이념에서,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번역자는 모두 '노예' 신분이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면서 원작의 의미를 따라야 할뿐만 아니라, 독자의 이해에도 종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는 번역자의 신분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왕위코어(王玉括)(2005)는 번역자는 항상 종속적, 하위적, 파생적 처지에 놓여 있고, 원저자의 '노예'가 되고 있지만, 번역자는 늘 다양한 번역전략(선택한 번역전략이 문화적 제한을 받고 있지만)을 통해 자기의 주체성을 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번역자는 이제 글로벌화 시대 문화 교류의 주도자로 변신했다. 1960 년대부터 연구 동향이 번역자 자신으로 바뀌되면서 번역활동의 주체로써 번역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특히 번역자의 주체성과 신분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최근 번역자 중심의 연구는 주로 번역가들의 이데올로기(박미정, 2011;

송연석, 2011; 原貞 , 2014)가 번역에 미치는 영향, 그들의 번역 실천(김진아 , 2009), 그리고 그들이 취한 번역 전략 (孫致禮 , 2002) 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번역가를 중심으로 그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점점 체계화 되고있다.

다음 〈그림 3.1〉는 대표 번역가 쟈오쥔펑(赵軍峰)(2007)에 대한 연구 중에서 도출한 번역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최종 이론 그림이다. 그림에서 제시한 모든 요인들은 번역가 자신의 내부요인을 중심으로 다른 네 가지 요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림 3.1〉 보여주듯이 번역가는 커뮤니케이터로서 주변 환경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요인인 번역가의 이데올로기, 지식 구조, 문화 신분, 번역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1〉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中国翻译*(赵軍峰 , 2007), P28-32)

또한, 김순미(2014)는 최근 번역학계에서는 '번역사(즉 번역가)'만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는 경향이 눈에 띄고 있다고 하면서, 체스터만이 번역사에 대한 연구는 결국 번역 사회학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될 것이며, 사회학적 접근의 틀을 번역 사회학, 번역사 사회학, 번역 과정/사회학으로 구분하였다고 인용하였다. 이어서 김순미(2014)는 번역사 사회학의 세 가지 측면을 소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번역사를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 즉, 지위, 보수, 작업환경, 역할 모델, 아비투스, 전문기구,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 저작권 등. 둘째, 번역사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 즉 언론, 문학작품, 영화 등 대중의 눈에 비치는 번역사의 모습. 셋째, 번역사 자신들이 에세이, 인터뷰, 역자 후기. 이 중 세 번째는 번역사 자신들의 작업과정에 대해 밝히는 부분으로 스스로 자신의 가시성을 높이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연구경향인 번역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 본격화되면서, 번역의 생산, 전파, 소비 및 수용 등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 예를 들면, 피에르 부르디외의 문화 사회학,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이론시스템 등을 수용하여 번역 현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 번역출판연구(김진두, 김창옥; 2012)는 주로 출판활동에 관련된 일련의 기관이나 종사자를 연구하였다. 번역에 대한 질적인 탐색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상길(2011)은 "옮겨지는 과정은 그 자체 '문명화'의 과정인 동시에 '식민화'의 과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즉 왜 옮겨 오느냐와 무엇을 옮겨왔느냐, 그리고 옮겨온 것들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 "외국 사상의 수용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우리 학문이 진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상길은 역자의 개입방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는데, 특히 역자의 글에 제시된 다음 5 가지 내용에 집중했다. "1. 역서의 텍스트 자체에 관한 것(서지학적 정보, 내용 요약), 2. 저자에 관한 것(저자의 개념이나 이론 일반, 전기사항, 저자의 학문이나 저작생산의 제도적인 맥락), 3. 역서의 텍스트 가치에 관한 것(번역의 의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 비판적 시각), 4. 번역 자체에 관한 것 (번역의 원칙과 어려움), 5. 역자의 개인 인간관계에 관한 것(저자와 역자의 관계, 주위 사람들에 대한 감사인사 등)이다." 이상으로 유형별 부르디외 역서의 역자 글에 대해 분류한 다음 부르디외 저작에 대한 한국의 수용 상황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유학 경험이 번역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번역가들은 외국 유학을 다녀오는 등 경험을 통해 이종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원서의 문화적 특성이 있는 언어에 대해 해석을 제공한다. 저오용핑(周永平)(2008)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현대 문학 300 여 명 작가 중 유학 경험이 있는 작가는 150 여 명 정도로 작가 전체 인원수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타국 문화의 전파자로서 번역 실무를 하게 된다면 일반 번역가보다 더 정확하게 외래문화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문화차이를 직접 느끼는 입장에서 자국문화의 부족함이나 공백을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 문화를 접하면서 보다 풍부한 표현 방식을 배울 수 있어 작품 창작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관점은 정춘(鄭春 2008 , 2013) 의 연구들이 있다. 그는 근대와 현대 작가들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면, 유학 경험이 있는 작가들은 창작성이 높으며, 문학계를 이끌어간다고 했다.

2) 학술번역서에 관한 선행연구

상술한 바와 함께 한국에는 한 저자의 학술 저서의 수용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번역 학술서에 대한 수용연구는 찾지 못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한국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도서가 사회과학에 흩어져 있어서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학술 번역서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는 2000 년 철강전매대학교(浙江傳媒大學) 셔베런 (邵培仁) 교수의 「중국대륙전파학전저,역저요목(中國大陸傳播學專著，譯著要目)」 이다. 그의 연구를 기반으로 쉬이신(許欣)(2003)은 1981~2002 년 커뮤니케이션학 중국내 학술서와 수용한 외국 학술 번역서를 수집하여 중국 커뮤니케이션학 도서 목록을 고찰하였다.

또한, 커뮤니케이션학 지식 지도를 목적으로 한 황단(黃旦)과 웨이딩(未丁)(2005)의 연구 논문은 1984~2002 년 중국 외래지식 수용 상황을 제시하였다. 즉 1984 년부터 2002 년까지 총 41 권의 학술 번역서를 정리하여 분류하면서 번역서 리스트 수집에 관한 두 가지 기준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척도는 역자가 번역 출판의 의도에 따라, 전파학 혹은 전파 연구의 입장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역서를 번역한 학술역서들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전파에 속한 학술번역서 (철학, 사회학, 신문학, 정보학, 언어학, 미래학 입장에서 진행된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논문 연구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 함)를 제외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문 잡지, 광고학, 문화연구도 같은 이유로 논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전파학 입장에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혹은 미디어)을 함께 나열한 학술번역서는 고찰 대상이다. 두 번째 척도는 전파학 역서라고는 표시 되었지만 일반적인 전파학 입장에서 이해하는 정보제공, 정보전달, 대중매체연구 등과 거리가 먼 연구들은 배제하였다. 예를 들면 「고등교육 교과서 학술역서 역총·전파학」 시리즈에 수록된「연기학(表演學)」을 제외하였다. 이렇게 선택한 자료들을 근거로 연구하고,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재시 및 작성하였으며 본고의 뒷부분 분류에도 도움이되었다.

그리고 중국 사회과학원 신문 및 전파연구소(中國社會科學院新聞與傳播研究)의 지원으로 2010 년에 출판된 왕이홍(王怡紅) , 호이칭(胡翼青)등이 엮은 「중국전파학 30 년(中國傳播學 30 年, 1978~2008)」에는 중국대륙의 전파학 편년사 및 발전사를

기록한 부분이 있다. 이 중 샹펀(向芬)의 커뮤니케이션학의 주요 학술서 리스트가 있으나 중국 국내 학자의 저작이 아니였으며 외래 번역서에 관한 완전한 리스트도 아니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를 포함한 그 외의 연구도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동일한 분류기준은 없었다. 대부분 연구가 도서를 수입한 시기에 따라, 혹은 중국의 전파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학술번역서 기준으로 분류 기준을 만들었으며 연구 수용 내용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

2. 연구문제 설정

기존 번역가의 연구를 통해 번역가의 주체성, 특히 번역가의 문화적 배경, 이데올로기와 직업은 모두 번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번역은 이제 전통적 "텍스트 전환"에 벗어나 문화적 의미와 함께 번역의 사회학적 의미와 시대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번역가는 번역이라는 사회적 의미가 강한 활동의 참여자이자 주도자로써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통신 기술이 발달한 미디어 시대에 여러 나라 문화 소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문화의 수용에 있어 번역가들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또한, 문화 글로벌 시대 이종 문화 배경을 경험한 유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학문 서적 연구를 살펴보면, 중한 양국의 진행 상황은 많이 다르다. 중국에서는 주로 한 명의 학자의 저서에 대한 번역 수용 연구,

번역의 사회 배경 탐구에 관한 연구, 번역자의 번역전략에 관한 연구도 등으로 특정 저작물이나 특정 작가의 글을 대상으로 수용 내용을 연구하였다. 한국에서는 한 가지 특정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수용 과정 혹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하고 그 수용 상황에 대한 연구는 찾지 못했다. 또한, 중국에는 커뮤니케이션 학문 전체의 수용 상황을 알아보는 연구는 있지만 어떤 번역서가 번역에 수용되는지에 관한 기본 만을 제시한 것에 머물어 있다. 특히 중한 양국 간 학문 분야의 번역서 수용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학문 서적들의 내용이 복잡하고 범위가 너무 넓다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어떤 서적이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에 속하는지도 찾아봐야 한다.

본고 연구 배경 부분에서 제시했듯이 중한 양국 간 교류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상대국의 외국 유학생 수가 각각 1 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문화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번역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문화가 다른 중국과 한국에서 최신 학문 학술서가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문화 교류 영역의 빙산 일각이다. 아울러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수용을 필터로 번역서의 특성과 번역자의 특성을 중심의 연구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양국 유학생들이 문화 교류에 있어 얼마나 많은 기여하고 있는지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20 세기 말 서양에서 탄생한 젊은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중국과

한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양국 번역과정의 차이와 그 사회적 의미를 고찰할 수 있는 점을 찾아 양국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수용국 입장에서 같은 수용국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비교를 통해 자국의 장단점을 알 수 있어 수용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출발점으로 외래 학문 수용 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먼저 분석 유목에 어떤 내용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식 수용 모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양국의 학술 번역서가 번역서와 번역자의 특징을 근거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수용했는지, 누가 번역했는지에 따라 분석 유목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번역서의 특징에 관한 '원서 나라', '원서 출판연도', '교과서 비중', '해당 분야', 번역자의 특성을 분석한 '번역자 신분 구성' 및 '번역자 유학경험 여부' 등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원서의 나라를 알아보는 것은 번역서가 어느 나라에서 수용되어 왔느냐에 대한 연구다. 이 나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국이 서적 수용 과정에서 나라별 편향성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수용 나라의 다양성을 찾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시에 '학문의 식민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연구할 수 있다.

원서 출판연도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시간상으로 중한 양국의 선진국 지식 수용 능력이 어떠한지, 또 얼마나 신속하게 최신 연구를 소개하는지를 찾아보고 대조할 수 있다. 양국의 과거 지식과 새로운 지식 수용 여부도 알 수 있으며 학술이 선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도 할 수 있다.

교과서 비중도 중요하다. 21 세기 가장 큰 변화인 글로벌 환경에서 각국은 글로벌 인재 수요 확대로 국제화를 교육 일정에 올려놓고 교육 목표로 삼았다. 쉬이란(徐岚), 쉬이마이진(许迈进)(2003)의 중한 대학원생 교육 국제화의 비교연구 에서"유학과 인재 교류는 천(淺)층적 국제화 방법이고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심층적 국제화 방법이다"라고 했다. 그는 교육 시스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뿐만 아니라 교과서 역시 국제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어떤 서적이 교과서로 번역됐는지, 교과서의 내용이 한 분야에 집중 혹은 여러 분야에 확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두 나라의 학문 발전 방향과 기본 틀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점은 학문의 패러다임을 확립에 중요하며, 교과서는 인재 국제화의 도구로 어느 분야의 교과서가 많이 번역됐느냐에 따라 한 국가가 어느 사업 분야에서 국제화 인재를 많이 필요하는 지를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양국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외래 지식 계몽을 수용하는데 있어 어느 국가가 글로벌화에 앞장섰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분야는 본고의 양국 커뮤니케이션 학술 번역서들과 관련된 학술 분야를 알아보는 부분이다. 이 분석 유목은 교과서 비중 분석 유목과 함께 양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술 번역서들이 어디까지 발전되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또한, 양국의 해당 분야에 대한 비교를 통해 서로 미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고 양국의 격차도 찾아볼 수 있다. 대조를 통해 과도 수용된 분야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 학문의 장점을 고취시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한중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 서적의 번역 상황을 전반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수용했느냐에 따라 분석 유목을 설정하여 연구 문제 1 을 도출했다.

1. 중국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서 번역 수용의 기본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1-1. 고전과 신서의 선택에 차이가 있는가?
   1-2.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서 번역에 국가별 차이가 있는가?
   1-3. 교과서 번역 비중에 차이가 있는가?
   1-4. 커뮤니케이션학의 분야별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번역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글로벌 문화교류에서 타문화 콘텐츠를 자국으로 수용하는 데에 있어 많은 번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예를 들면, 타국 문화 콘텐츠의 소비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번역학 연구는 번역의 질에 대한 연구로부터 번역자의 주체성(translator's subjectivity)에 대한 연구로 연구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2000 년부터 중국에서는 번역자 신분(translator's identity)이 번역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번역자가 속한 문화 환경이 번역자의 이데올로기에게 미친 영향, 번역 전략 선택에 미친 영향과 번역 결과물에 미친 영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했다. 즉 많은 번역물의 질에 관한 연구 대신 번역자의 신분이 번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더 중요해졌다. 또한, 신분뿐만 아니라 통일된 사회 문화 배경하에 번역자 단체에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면서 같은 번역 규범을 준수했으며, 그들이 당시 시대적 특성 하에 번역 과정 중에 나타나는 번역 선택 선호도, 번역문 형태, 구조, 나아가 작업 행위와 방식 등 여러 면에서 그 시대성을 엿볼 수 있다고 중국 연구(王江涛 , 2011)연구에서 밝혀졌다. 또한, 신분과 문화 배경은 어느 정도 타문화에 대한 해독 능력과 언어의 전문성도 대표하고 있다.

선행연구 자료를 통해 번역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학술 서적 번역에 영향을 준 역자의 신분과 문화 배경, 즉 번역자의 유학 경험 여부를 고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학술 서적 번역에는 학술적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번역 작업을 맡은 자는 일반적으로 언어 능통자, 번역 전문가, 본 전공의 교사, 교수 등이다. 최소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이가 번역함으로써 번역에 대한 전문성 논란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화적 의미가 강한 단어면, 도착 언어 국가에는 원언어의 의미에 완전히 맞는 단어가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문화 차이로, 도착 언어국에서 이해하는 단어의 의미가 원 언어국에서는 반대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한 번역의 경우 비슷한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 이러한 번역의 어려움은 번역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어봤던 사실이다. 만약 번역자가 원언어와 도착 언어에 모두 능숙하고, 두 나라의 문화도 잘 알고 있다면 그러한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학 경험이 있는 번역자가 유학 경험 없는 번역자 보다 번역 작업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번역의 양과 질에서 그러한지는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선진 학문의 수용은 주로 해당 전공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로 주로 교수들이다. 따라서 어떤 학술 원작을 선택하여 수용하는지는 고층 학자, 즉 교수 집단이거나 이 학문의 연구 단체에 달려있다. 또한, 원작이 원 언어 국가에서의 학술적 지위와 영향력, 첨단학술인지 여부는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가 더 잘 알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번역자 신분이 학문 수용 선택의 높이를 결정하고, 유학 경험이 그 확대 폭을 결정한다고 본다. 따라서 외래 지식 학문 수용의 전문성 혹은

내용의 다양성에서 출발하여 번역자의 신분 구성과 유학 경험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번역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 중국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 번역서에서 번역자 차이가 존재하는가?

2-1. 양국의 번역자 신분 구성에 차이가 있는가?

2-2. 양국의 번역자 유학 경험 여부에 차이가 나는가?

번역자 신분이나 역할 뿐만 아니라 번역 작업에 참여한 번역자의 수도 번역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번역자 태도를 비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번역 태도는 번역자가 어떤 자세 혹은 생각을 가지고 원서를 접하고 번역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번역의 의도나 자세를 파악하기 위해는 별도의 관찰이 필요하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번역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번역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인 역자의 글(서문 혹은 후기)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역자는 서문 혹은 후기를 통해 번역작업의 시작 원인, 소감, 번역 전략 선택, 그리고 원서 저자와의 인적 관계, 출판사와의 관계 등 더 나아가 원서 독후감, 원서에 나타난 편향적 관점에 대한 교정, 번역가

혹은 출판사에 대한 감사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번역자의 번역 태도를 대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역서를 고를 때 번역이 잘 됐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바로 역자의 글을 살펴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술 서적 수용의 입장에서 역자의 글이 갖는 의미도 중요하다. 번역자가 처음 어떠한 학문적 입장과 학술 자세를 가지고 원서를 번역하게 되었는지가 역자의 글에 실려 있다. 일반적으로 원서의 학술적 의미,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번역하게 되었는지, 교과서인지 등 그 내용에 따라 학문 발전을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학문 수용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학문 분야의 계몽을 위한 수용, 좋은 관점이나 연구방법의 귀감을 위한 수용, 혹은 어떠한 관점이나 자국에 적용할 수 있느냐의 비판을 위한 수용, 그리고 학술 가치가 있는 원서이지만 아무 이유 없이 일반적으로 수용된 것도 있지만, 물론 학술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수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외래 학술 서적의 수용 연구는 자국 학문 구축 및 발전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연구 문제 2 번역자 신분 구성과 번역자 유학 경험 여부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역자의 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양국 번역자의 번역 태도를 알아보려 한다. 번역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학술적 수용 자세의 관점에서 4 가지 분석 유목을 설정했다. 즉, 기본 지식에 대한 소개와 그

수용 태도, 심화 지식 도입에 대한 수용 태도, 비판적 수용 태도, 그리고 번역 자세가 명시되지 않는 기타 번역서이다. 따라서 연구 문제 3 은 다음과 함께 설정하였다.

3. 중국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 번역서 번역에서 번역자의 번역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3-1. 기본 지식 소개에 대한 수용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3-2. 심화 지식 도입의 수용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3-3. 비판적 수용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제 4 장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사회 배경과 문화 배경이 전혀 다른 중국과 한국을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장에서는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1.내용 비교 분석의 어려움 및 극복 방법

양국 간 비교 분석을 진행하려면 중한 양국의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번역서들의 비교 가능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 나라의 커뮤니케이션 분야 서적 수집 자체가 힘들었지만, 사회체제, 학문체제 그리고 학과 설계가 크게 다른 상황에서 두 나라의 비교연구는 아주 어려웠다. 또한, 학문을 수용해온 시간, 학문에 대한 건설적 지향 등 학술적 혹은 제도적인 문제로 비교 분석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전체 커뮤니케이션학 입장에서 양국의 비교 분석은 진행하기 어렵지만, 제한된 조건 하의 연구 영역 비교분석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적절한 비교 분석을 위해 여러 방면의 노력으로, 최대한 같은 학술 연구 영역의 기준 하에 양국의 학술 번역 서적을 수집하였다. 안타까운 점은 양국의 학문 체계 및 도서 분류를 모두 고려하여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모든 수용 서적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 번째 어려움은 중국과 한국이 커뮤니케이션 학문 도입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다른 도입 시기 또한 같은 시간적 라인에 놓고 비교하면 연구의 정확성 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국의 전파학(중국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파학으로 번역하였다. 아래 문장에서 언급된 전파학은 모두 커뮤니케이션학을 가리킨다)과 한국의 언론학(커뮤니케이션학)은 최초 서양으로부터 도입하였고 서양의 커뮤니케이션학처럼 사회과학 영역의 분과가 아닌 점에서 같았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1978 년) 이전 서양의 커뮤니케이션학의 수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였지만 중국 국내의 학술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개혁개방 이후까지 커뮤니케이션학이 없었고 신문학(신문방송학)만 있었다. 1978 년 커뮤니케이션학 관련 지식이 중국 국내에 대량 유입되었다. 1983 년 첫 번째 미국 커뮤니케이션 학자 윌버 슈럼 (Wilbur Schramm) 이 중국에 와서 견학하였고, 그의 학술 번역서「전파학개론(傳播學概論)」(Men, Messages, and Media: A Look at Human Communication)가 중국 국내에서 출판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 커뮤니케이션학의 공식 도입을 상징한다. 따라서 초기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두 신문학 학자들이다. 1 세대 신문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1997 년 푸단대학, 중국인민대학(復旦大學，中國人民大學) 등 명문대에서 커뮤니케이션학(전파학)이 2 급 학문인 신문방송학과와 같은 학문으로 선정되었다. 그 후 전국 범위내에서 전파학(커뮤니케이션학)은

일류 대학 중심으로 신문학과와 분리되어, 정규 교육과정 개설되었다. 그 때부터 전파학은 중국 전역에 우후죽순처럼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전파학이 독립적인 학문 분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실제 중국의 학문 설계에서 신문전파학은 1 급 학문이며, 2 급 학문은 신문학, 전파학(사회과학에 소속), 라디오광파텔레비전학(즉 방송학), 광고학, 출판편집학 등 5 가지다.

"제도화 초창기(1964~1974)에 전통적인 '신문학'으로 출발한 한국 언론학의 경우 1960 년대 (미국의 윌버 슈람의 영향을 크게 받은)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창설의 주역인 김규환의 리더십에 힘입어 미국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지향하면서, 마침내 1970 년대 들어 저널리즘 실무교육을 목표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심의 학문이며, 사회과학인 커뮤니케이션학이 '주류 언론학'의 지위를 획득하였다(양승목, 2005)."

중국과 한국은 현재 학문 제도와 도입 시기가 다르지만, 양국의 커뮤니케이션학 연구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의 학자 리어썽칭(廖圣清)(1998)은 전파학이 중국에서 처음 발전된 20 년을 다섯 단계로 정리하였다. 1993 년~1998 년은 전파학의 학문 지위 확정 단계이며. 진리단(陳力丹)학자는 2005 년 연구에서 1999 년~2000 년을 고조기라고 했다. 슈배딩(徐培汀)은 2006 년 출판한 「중국신문전파설사(中國新聞傳播學說史)」에서 전파학의 연구 역사의 변천사에서 1992 년~1997 년은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 1998 년~2005 년은

번영 발전기로 나누었다. 한국은 언론학 학자들이 시기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 양승목(2005)은 연구에서 언론학의 전성기는 1991~현재(투고한 날까지)까지이며, 김영희, 윤상길(2013)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발표에서 1995 년부터 2005 년 국제적인 학술 교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연구의 외연을 확장했으며, 해외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하기 시작한 기간이라고 했다. 또한, 2005 년 이후 현재까지를 연구소의 도약기라고 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양국 커뮤니케이션학의 안정기를 살펴보면 2000 년 이후로 양국이 전성기를 맞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다.

두 번째 어려움은 양국의 학문 배치의 다름으로 인해 도서분류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양국의 커뮤니케이션학(중국은 전파학이고, 한국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도서관에서의 도서 배치 방법이 크게 다르다.

우선, 양국의 도서 분류법을 살펴보면, 한국은 '십진도서분류법(KDC)'을 사용하고 중국은 '중국 도서분류(CLC)'에 따라 운영한다. 양국 도서분류법의 다름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학의 학술 도서의 선정과 모집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선 한국의 경우 언론 관련된 도서는 '000 총론' 분류에 '070 신문, 언론, 출판'에 속하고 대량 커뮤니케이션학 도서는 전부 '300~400 사회과학 일반'에 흩어져 있다. 다행히 '커뮤니케이션북스', '한울', '나남' 3 개 출판사는 커뮤니케이션학의

도서를 많이 출판하는 출판사이며 '한나래 출판사'도 일부를 출판한다. 따라서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술 번역 도서를 선정하는 과정은 1 차로 국회도서관 도서 검색 엔진에 '상세검색'을 하여 네 개 출판사 중심으로 학술 번역 도서를 선정한 다음, 2 차로 '300~400 사회과학 일반' 분류검색을 하여 모든 학술 번역 도서를 수집하고 그중에서 커뮤니케이션학에 속한 학술 번역도서를 선택하였다. 최대한 CIA 분과의 폭에 따라 도서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중국은 한국 대비 분류가 크게 다른데 전파학(커뮤니케이션) 도서는 '중국도서분류법' 에 따라 'C 사회과학총론(社會科學總論)' 부류가 아닌 'G 문화·과학·교육·체육(文化、科學、教育、體育)'에 포함 시켰다. 두 번째는 바로 현재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연구가 여러 가지 분류에 흩어져 있는것이다.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중 다른 학문과의 공동체 특성을 지닌 분과들 예를 들면 사회문제 특성을 지닌 연구는 대부분 'C 사회과학총론 (社會科學總論) '에 포함돼 있다.

확인 결과, 최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뜨겁게 진행 중인 하위문화연구, 청소년연구, 젠더연구 등과 같은 사회문제 특성을 지닌 주제는 C 사회과학총론 (社會科學總論) 의 하위 분류인 '사회문제 분류'에 속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PR 연구에 관련 학술역서를 많이 수용하는데, 중국에서 PR 연구에 관련 학술 역서들이 C912.3 사회관계,

사회제약 (社會關係 , 社會制約) [3] 에 분류되어있다. 즉, PR 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다른 학문인 공공관계학 (公共關係學) 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중국에서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은 모두 공부하는 「탁월한 공공관계 및 전파관리(卓越公共關係與傳播管理)」(원서:*Excellence in Public Ralations and Communicaiton Management*, James E. Gruning)는 북경대학출판사에서 출판된 「공공관계 클래식 역서총서 (公共關係經典譯叢) 」 에 포함돼 있다. 그러한 학술역서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은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책 내용을 살펴야 하는 작업으로 본고에서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나마 한국 대비 "이것은 커뮤니케이션학 도서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있는 분류가 있다. 즉, G20 정보 및 전파이론 (信息與傳播理論) [4]의 하속 뷰류인 G206 전파 이론(傳播理論)과 G209 전문정보 및 전파이론(專門信息與傳播理論)"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게되는 도서들은 대부분 G206 전파이론 (傳播理論)과 그의 하위분류인 G206.2 전파매체(傳播媒介)와 G206.3 대중전파(大眾傳播)분류에 속해 있다. 다음 〈표 4.1〉는 종속관계를 제시하는 '중국분류법'에 따라 분류한 G 분류의 일부분이다. 표에 G206 전파이론만 제시하였고 그 하위 분류인

[3]분류의 하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C 社會科學總論(사회과학총론)→C91 社會學(사회학)→C912 社會結構和社會關係(사회구조와 사회관계)→C912.3 社會關係、社會制約(사회관계、사회제약)
[4]'G 文化，科學，教育，體育(문화,과학,교육,스포츠)→G2 信息與知識傳播(정보및지식전파) → G20 信息與傳播理論 (정보및전파이론)

G206.2 전파매체 와 G206.3 대중전파를 제시하지 않았다.

〈표 4.1〉중국 G 류 분과

중도분류/ G. 문화, 과학, 교육, 스포츠/ G2. 정보 및 지식 전파/ G20. 정보 및 전파이론		
순서	분류 번호	분류 명칭
1	G201	정보이론
2	G202	정보처리기술
3	G203	정보자원 및 관리
4	G206	전파이론
5	G209	전문정보 및 전파이론

따라서 중국 도서분류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학 연구영역 도서가 3 개 영역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 매스커뮤니게이션 영역들이다. 그러나 그 세 가지 영역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모든 영역이 아니다. 서양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대부분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대부분 서적은 사회과학 없었다.

또한, 일부 전통적인 분야는 오늘날 문화연구의 시각에서 다시 연구하게 된 것들이 있다. (즉 미디어, 매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포함된 신문, 라디오, TV 등과 관련된 효과연구, 수용자연구와 문화산업연구들이 있다) 그러한 연구들이 커뮤니케이션학이 다른 학문으로 확대되는 가교 역할을 하므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도서분류 중 'G21 신문학(新聞學)', 'G22 방송, 텔레비전사업(廣播電視事業)'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 속하는 '보도연구', '저널리즘 문화연구(정치, 민주주의)', '도덕 정책', '방송 문화', '방송 사업' 등의 시각에서 진행된 커뮤니케이션 연구 역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양국의 도서 분류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기반으로 비교 분석을 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분류가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커뮤니케이션학에 속한 학술 번역서를 비교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중국에서 정확하게 규명한 커뮤니케이션학은 세 영역인 커뮤니케이션 연구 (G206) , 미디어 (G206.2) , 매스 커뮤니게이션 (G206.3) 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미디어연구 주제에 미치는 수용자연구,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 주제에 미치는 뉴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상의 문화연구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절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설정"에서 진행하겠다.

마지막으로 규명해야 할 점은 뉴스,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등 편집 방법, 작업, 이용 방법 그리고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학술역서, 혹은 교양서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G235 출판사업'은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 속하여 원래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해야 하지만 중국 출판산업에 학술번역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가정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자료는 2009 년까지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어려움을 최대한 감안하여 양국의 서적 선정 기준을 공유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비교연구에 항상 아쉬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본 연구도 더 광범위한 최근 커뮤니케이션학의 수용 양상을 제시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설정

4.1 절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내용분석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 중국과 한국에서 출판된 커뮤니케이션학 분야 학술 번역서 리스트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국회도서관 소장 도서를 참고로 총 두 차례의 선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우선, 한국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도서를 집중적으로 출판하는 3 개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한울(한울 아카데미)', '나남' 위주로 학술역서 리스트를 만들어보았다 ('한나래 등 몇 개 출판사'도 출판된 것이 있지만 2 차 선정과정에 포함되어 있어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 않음). 그다음으로 국회도서관 인터넷에서 '300~400 사회과학 일반'에 있는 전체 학술 번역서를 찾아보았다. '네이버 책'의 분류 시스템을 참고하여 언론학 도서인지를 확인하고 1 차로 선정된 학술 번역서 리스트를 보완하였다.

중국에서는 중국 도서분류법(CLC)을 따라 도서관 소장 도서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1 년 간격으로 출판된 「전국총서목(全國總書目)」이라는 염간이 있다. 이것은 중국의 권위 출판사인 新聞出版總署(신문출판총서, 즉 신문출판본부)가 학술연구를 제공하기 위해 출판된 염간이며 전면적이다. 따라서「전국총서목(全國總書目)」위주로 중국의 G206 전파 이론(傳播理論)(하위분류가 G206.2 전파매개(傳播媒介)와 G206.3 대중전파 (大眾傳播)가 있다)과 G209 전문정보 및 전파이론(專門信息與傳播理論)항목을 통해 중국의 학술 번역서 리스트를 수집하였다. 또한, 저널리즘 연구와 방송 연구도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중국 'G21 신문학', 'G22 광파, 텔레비전' 영역을 포함한 번역서를 수집하였다. 수집 과정 중 2007 년「전국총서목(全國總書目)」에 기록된 학술 번역서가 적어 중국에서 초성 (超星) 이라는 전국의 도서관 검색 엔진을 통해 학술검색엔진에서 '키워드'를 이용해 수집하였다.

양국의 수집 방법과 수집과정 그리고 선정 영역을 제시하면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한중 학술 번역서 수집 절차 및 내용

한국(국회도서관)	중국(전국총서목,超星 (초성))

출판사: "커뮤니케이션 북스", "한울", "나남",	1. G. 문화, 과학, 교육, 체육의 하속 분류인, 1. G206 전파 이론 (傳播理論) (하속 분류인 G206.2 전파매개(傳播媒介)와 G206.3 대중전파 (大眾傳播))과 G209 전문정보 및 전파이론(專門信息與傳播理論)"
도서분류법: 총류 070 언론, 저널리즘과 사회과학 300 사회과학 일반	2. 'G21 신문학 (新聞學)', 'G22 라디오텔레비전사업(廣播電視事業) 중에 일부분: (1) '보도연구', '저널리즘 문화연구(정치, 민주주의)', '도덕 정책', '방송 문화', '방송 사업': (2)문화연구 부분, 미디어 윤리, 수용자연구, 미디어효과 연구, 문화산업연구;

어떤 기준으로 학술 번역서를 수집했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우선, 중한 양국을 같은 범위에서 번역서 수집을 서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커뮤니케이션 분류에 포함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분과들을 양국에서 모두 배제하였다. 즉, 정보이론, 통신 기술, 순수 문화이론, PR 연구 그리고 사회문제로 분류되어 있는 어젠더연구, 청소년연구, 계급 연구, 게임 연구 등을 연구 대상에 제외했다; (2). 또한,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 속하지만, 항상 또 다른 학문의 시점에서 연구가 진행된 분과, 예를 들면 미디어 광고홍보, 영화, 라디오 등 연구들이 있다. 광고 홍보 항상 경영학의 시각에서, 영화, 라디오는 주로 예술이나 영상학 시각에서 연구 문제로 삼으며, 본고의 연구 대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편집 및 제작, 신문 편집, 취재 및 신문 법률, 프로그램 편성 연구등도 제외했다. 같은 원인으로 영화연극, 실용

미디어, 미디어 미학, 디자인 그리고 비주얼 등을 제외했다. (3). 대신 커뮤니케이션 연구 시점에서 바라보는 뉴미디어나 디지털 미디어 연구, 혹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의 입장의 신문, 방송연구는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학술 번역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책 뒤에서 혹은 문단 밑에서 참고문헌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였으며 간혹 역자 글의 내용에도 학술서인지를 표시한 바가 있다. 상기 근거로 양국의 학술 번역서 리스트를 만들었다.

3. 분석 유목 코딩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학술 번역서를 통해 양국의 커뮤니케이션학문에 대한 지식 수용 차이의 양상을 그려보고 양국의 번역자 태도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정된 번역서의 내용 분석 위한 구체적인 자료 분석 수집 대상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 장에서 설정된 분석 유목들이 구체적인 자료 수집 과정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코딩이 필요하다.

앞 장에서 연구문제 1 의 분석 유목은 '원서나라', '원서출판연도', '교과서 비중', '해당 분야'이고, 연구문제 2 에서는 '번역자 신분 구성', '번역자 유학 경험 여부'이며, 연구문제 3 에서는 번역자 태도인 '기본 지식 소개적 수용 태도', '심회 지식 수입적 수용', '비판적 수용 태도', '기타 수용 태도'이다.

이상 분석 유목들 중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 일부분의 분석 유목 만에 집중해 코딩한다. 앞에 연구문제 설정에서 이미 왜 이러한 분석 유목을 설정하였는지를 언급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 분석 과정 중에 이 유목들이 어떻게 수집되었는지에 대해는 다시 한번 수집의 순서에 따라 알리도록 한다. 분석유목에 따라 코딩한 바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서나라는 원서 출판된 나라의 수집함이다. 그 중에 SAGE 출판사가 영국과 미국에 모두 지사가 있는 경우, 저자가 속한 나라 혹은 대학으로 원서 나라를 수집하였다.
2) 교과서 비중은 연구 대상인 번역 서적 중 교과서가 차지한 비중을 알아보는 것이다. 여기서 교과서 선정은 커뮤니케이션 대학 정규 과정에 쓰는 교과서를 위주로 수집했다. 교과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1. 번역서 목록을 살펴보고 한 장이 끝나고 문제풀이가 있고 뒷장에 같은 연습문제가 있으면 교과서이다. 2. 번역자가 역자 서문에서 교재라고 명확히 적었으면 교과서이다.
3) 원서 출판 연도

   원서 출판 연도는 우선 저작권 페이지의 표시 기준에 따라 수집하였다. 단지 저작권 페이지에 표시가 없을 경우 구글에 원서를

검색해 연도를 기록했다. 교과서와 함께 여러 번 재편집 및 재출판된 경우 재편집의 판본과 상관없이 바로 번역판본과 대응하는 원서의 출판 연도로 수집하겠다.

4) 번역자 신분 구성

실제 자료 분석 과정 중 번역자 신분이 다양하다. 교수, 연구자, 기자, 방송인, 전문가, 해외거주자, 박사, 번역가 그리고 비전공교수와 강사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번역가가 아닌 원서나라의 원 언어의 전공자도 존재한다. 그러나 양국의 번역자 신분 구성 상황은 많이 다르다. 상술한 신분을 모두 변수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하다. 따라서 비교 연구의 시점에서 많은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상황을 맞춰서 세 가지 신분 변수만 설정하였다. 즉, 1. 전공교수(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나 미디어 분야의 교수), 2. 연구원(대학교에서 연구원과 커뮤니케이션 관련 조직에서 종사하는 연구인원을 포함), 3. 전문가(기자, 방송인,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경력자, 전공박사, 번역가), 4. 비전공인 교수 혹은 강사(전공교수 외에 학과 교수들. 정치, 국제관계, 경영경제, 정보시스템, 혹은 동아시아학과 등 같은 커뮤니케이션학과의 내용과 많이 중복된 학과의 교수도 비전공교수로 지정하겠다)이다.

그러나 양국의 역자 신분을 살펴본 결과, 전문가, 연구원, 교수 등 외에도 어려 사회적 신분을 지닌 분들도 많은데, 특히 중국의 한

역자는 여러 가지 사회신분을 지니는데 이런 경우 신분 중에 전공 교수만 신분이 있으면 "전공교수"로 기록하였다. 단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맡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겸임 교수 경우 역자 신분의 편향에 따라 전문가 혹은 연구원으로 기록하였다. 중국에는 특별 사례가 있는데, 즉 흐아다오관(何道宽) 학자는 유명한 번역가이자 작가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학술 저서를 대량 번역하다가 커뮤니케이션학의 교수가 된 경우다. 이런 경우 여전히 번역가로 기록하였다.

5) 번역자 유학 경험 여부

역자 유학 경험 유목에서 '유학', '유학 없음' 그리고 '방문학자(개원 연구원도 있긴 있지만 많지 않은 이유로 따로 변수를 설정하지 않았다)' 세 가지 변수로 자료를 수집 했다.

유학 경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외국에서 대학교, 석사, 박사 등 학위 취득여부다. '방문학자'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교수가 된 다음 연구를 위해 해외에서 일 년(2 년인 경우는 드물다) 동안 학습하거나 연구경험을 쌓은 것이다. '방문학자' 중 여러 나라를 방문한 학자도 있는데, 여기서는 '방문학자'로 통일하였다.

여기서 방문학자를 별도로 유학 경험이 있는 기준에서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방문학자는 주로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기 때문에, 방문의 시간이 짧아 방문한 국가의 문화 적응단계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문화적응 단계가 있는데 거주 시간에 따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문화 차이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유학생들은 문화 적응에 있어 시간이 오래될 수록 문화적응이 더 잘되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방문학자는 유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회와 학교생활 체험 대신 주로 학교 생활과 학술 활동에 참여한다. 사회적인 생활 체험이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경우 체류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부분 문화 적응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귀국한다. 따라서 유학자는 방문학자보다 지식 수용국의 문화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 과정 중 언어 표현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방문학자는 유학 경험이 있는 번역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 과정 중 양국의 차이를 크게 보여줬던 부분이 번역자 수의 문제다. 번역서를 공동 번역한 경우가 많아 공동 번역자는 유학 경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모두 포함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역자 세 명이 나누어서 번역한 경우 그중에 한 명이 유학 경험이 있으면 전체가 유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기록했다. 중국에서 공동 번역일 경우 일반적으로 전공 교수 한 명이 함께 번역 작업을 한다. 유학 경험 있는가는 그 교수의 신분에 따라 기록했다. 또한 공동번역자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기록하였다.

6) 해당 분야

앞 장에서 연구 대상인 학술 번역서가 미치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양국을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 번역서를 최대한 살렸다. 많은 학자가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는 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미디어 연구이다" 라고 인정한 대로 본고의 해당 분야의 분류를 먼저 네 가지 연구 영역으로 나누었다. 즉 '커뮤니케이션 연구', '미디어 연구', '저널리즘 연구', '방송 연구' 네 개 큰 주제 분야다. 여기서 제시한 '저널리즘 연구'와 '방송 연구'는 제 4 장에서도 규명했듯이 저널리즘, 방송 분야의 노하우를 가르치는 도구서와 전문가 양성인 교양 학술서를 제외하고 보도, 문화, 정책, 사업 입장에서 진행한 연구들을 살렸다.

또한, 황단(黃旦)과 웨이딩(韦丁)(2005, p25)의 연구 논문에서 수집한 번역서 주제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만들어졌음을 시사함을 따라, 양국의 차이를 명확하게 재현하기 위해 네 가지 연구 영역을 세부화 시켰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번역서들의 주제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불가피한 문제로 분류에서 번역서의 책심 내용 혹은 연구 목적에 따라 분류하였다. 다음 제시한 표를 통해 어떠한 세부 분야에 따라 비교 분석을 할 것인지를 제시하려 한다.

우선, ICA 분과를 참고하여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의 세부 분야를

분류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매스 커뮤니케이션, 인간 커뮤니케이션, 조직 커뮤니케이션, 국제 커뮤니케이션, 정치커뮤니케이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등 분야가 있다. 따라서 다른 번역서는 내용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역사 및 사상, 커뮤니케이션 사회문화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4.3〉과 같다.

표〈4.3〉커뮤니케이션 연구 주제의 세부 주제 분야

1.커뮤니케이션 개론 및 이론	7.정치 커뮤니케이션
2.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	8.국제 커뮤니케이션
3.커뮤니케이션 역사 및 사상	9.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4.매스 커뮤니케이션	10.커뮤니케이션 사회문화
5.인간 커뮤니케이션	11.커뮤니케이션 새영역들
6.조직 커뮤니케이션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개론 및 이론'은 체계적으로 기본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소개한 번역서들을 가리킨다. 즉 일반 통론, 개론, 개별적 이론, 비판이론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역사 및 사상'은 커뮤니케이션 역사 연구 혹은 철학적 사상, 경험에 대한 연구 번역서들을 가리킨다. '커뮤니케이션 사회문화'는 사회이론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연구,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혹은 문화 영역에 속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가리킨다. "커뮤니케이션 새 영역들"은 스포츠/감성/에이징/위험 커뮤니케이션을 가리킨다.

다음으로〈표 4.4〉는 '미디어 연구' 영역의 세부 주제 분야를 제시한다.

〈표 4.4〉 미디어 연구 영역에 세부 주제 분야

1.미디어 이론 및 방법론	6.미디어 수용자/효과 연구
2.미디어 연구	7.미디어 정치/민주주의/정책 연구
3.미디어사	8.미디어 윤리
4.미디어 사상/철학	9.미디어 경영/경제/산업 연구
5.미디어와 사회, 문화	10.미디어 기타

이 부분의 세부 주제 분야의 분류 기준에 대해 다음 몇 가지를 설명해야 한다. '미디어 이론 및 방법론'은 일반적 미디어(매체) 이론 및 미디어 연구 방법을 가리킨다. '미디어 연구'는 미디어(매개) 연구, 뉴미디어 연구 그리고 미디어로 인해 변해가고 있는 환경 및 인간들의 일상 생활에 관한 연구를 말하며, '미디어사'는 매스 미디어사를 포함한 미디어 역사에 관한 연구를 가리킨다. '미디어와 사회, 문화'는 미디어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혹은 문화연구의 시점에서 한 연구를 말하며, '미디어 기타'는 다른 분야로 분류되지 못한 분야를 가리킨다.
다음〈표 4.5〉는 저널리즘 영역의 세부 주제 분야에 대한 제시이다.

〈표 4.5〉저널리즘 연구 영역에 세부 주제 분야

1. 저널리즘 및 저널리즘사	5. 저널리즘과 정치 민주주의
2. 도덕, 규범	6. 위험보도

3. 언론 4. 저널리즘 사업/경영	7. 환경저널리즘

여기서 '저널리즘 및 저널리즘사'는 신문에 관한 연구와 신문사 발전사에 관한 연구를 가리킨다. '저널리즘 사업/경영'은 주로 신문사 사업, 신문사의 경영 및 관리를 가리킨다. 방송 연구 영역의 세부 주제 분야가 많지 않은 이유로 표로 제시하지 않고 나열했다. 즉 '방송 문화', '방송 사업', '방송 제도 정책'으로 세부화 하였다.

7) 번역자 태도

번역자 태도는 어떤 자세로 원서를 접하였으며, 번역했는지를 보여주는 변수이다. 즉 번역 수용의 목적을 의미한다. 그러한 목적을 고백할 수 있는 공간은 역자의 글밖에 없다. 특히, 학술적 서적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실리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번역자의 초지, 즉 번역을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있다고 본다. 커뮤니케이션 학문 수용의 자세로 분석 유목은 기본 지식 소개에 대한 수용 태도, 심화 지식 도입에 대한 수용 태도, 비판적 수용 태도 그리고 기타수용 태도로 나누어졌는데, 다음으로 구체적인 수집 과정에서 네 개 분석 유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연구 대상인 역자의 글에 실린 상황과 어떠한 담론과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역자의 글은 주로 서문과 후기로 많이 실린다. 서문에서 일반적으로 담는 담론과 내용이 원서의 서지학적 사항이나 원서 내용에 대한 개요 소개, 원서를 번역한 이유 혹은 목적, 원서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추천하는지, 원서를 다룬 주제와 관련된 역자의 국내 상황을 살펴보는 글, 주제 내용과 관련된 논문 실림 등이 있다. 후기에서 보통 번역과정의 어려움이나 번역전략의 선택(집단 역자의 경우는 역자가 맡긴 부분을 발표), 교정자 혹은 편집자, 도와준 사람에의 감사 표시 혹은 주제와 관련된 논의 등의 담론 내용이 있다. 그러나 역자의 글에 이상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것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보통 이상의 세 개 혹은 네 개의 담론 내용만을 실려 있다.

양국의 역자의 글에 실린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술 역서는 일반적으로 서문은 대부분 있지만, 역자 후기가 모두 있지는 않다. 중국은 이 점에서 같지만, 후기가 있고 서문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역자 서문이 없고 역총(譯叢)의 서문이 실려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양국 모두 서문이나 후기 심지어 역총 서문도 없는 번역서가 있다.

역자 글의 담론 내용이 다양하고 글에 실린 상황도 많이 다르지만, 학술 관점에서의 번역 수용이기 때문에 역자 글에 제시된 수용 목적에 따라 번역자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서문이나 후기가 실린 상황이 다르다 보니 보통 역자 서문과 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점을 근거로 수용

태도를 분류했다. 중국의 경우 서문이나 후기는 없지만 역총 서문이 있는 경우 역총의 번역 수용 자세를 참고하여 수용 태도를 분류했다. 다음으로 번역자 태도는 네 가지 번역 수용 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되었는를 설명하도록 한다.

기본지식 소개적 수용 태도 vs 심화 지식 수입적 수용 태도

우선, 양국에서 역자 글의 담론 내용을 보니 크게 "계몽(啟蒙), 비판(批判), 귀감(借鑑)" 3 가지 번역 수용 태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그들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문화 차이 일 수도 있는데 양국에 의미에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계몽은 한국에서 '의미가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함'이고, 중국에서는 '초학자에게 가르침을 통해 기본, 입문 지식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계몽적 담론의 의미는 '가르치다, 학습하다, 깨워준다'등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귀감의 의미는 한국에서의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이고, 중국에서 '다른 일이나 사정과 대조하여 좋은 것을 취하여 나쁜 것을 개선하고 교훈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귀감적 담론에서 '참고, 대조, 모법, 경시(警示), 자성, 그리고 개선' 등 뜻을 포함한다.

그러나 외래 학문을 수용한 초지는 선진국의 선진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계몽'과 '귀감'이 모두 참고, 학습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 수집 과정에서 아주 혼란스러웠다. 따라서 본고는 계몽적 담론과 귀감적 담론에 포함된 지식 수용에 대한 심도에 따라 코딩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계몽은 주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귀감과 심화된 지식을 학습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계몽과 귀감의 의미를 다시 말하면, 계몽이 모든 입문 지식, 혹은 기초 지식으로 판단된 모든 기본 학문 지식 내용인 번역 수용을 의미하고, 귀감은 계몽을 기초로 한층 상승한 심화된 지식의 학습 참고를 강조하고, 연구를 추진하고 문제 해결 참조 등 수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몽적 담론을 기본 지식 소개적 수용 태도로 명명했고, 귀감적 담론을 심화 지식 수입적 수용 태도로 명명하였다. 특별히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국의 '미명사과·매개여시화총서:번역판(未名社科·媒介與社會叢書:翻譯版) 역총'에 속한 번역서들에는 역자의 글이 없지만 역총 서문이 있다. 역총 서문에서 총괄적인 수용 태도는 기본 지식에 대한 소개였다. 실제 번역서의 내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 지식 소개에 대한 수용 태도로 분류되었다.

비판적 수용 태도

중한 양국에서 비판이 갖는 의미는 각각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과 '잘못된 사상, 언론 혹은 행동을 분석한다; 부정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술 수용의 입장에서 보면

옳고 그름을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수용의 목적은 선진 지식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 수용이 양국에서 모두 드문 상황이였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 사카베 메구미 등 작가들이 공처한「칸트사전」를 참고하였다. 이것은 칸트의 3 대 비판 철학을 종합한 저서이고, 비판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말의 근원인 그리스어(κ ρ ί ν ω)의 본래 뜻은 '나누다'는 것이다('위기'Krisis(기반의 분열에서 유래한다)와 같은 뿌리). 즉 이 경우의 '비판'의 본래 뜻도 '어떤 것을 나누어 그 각각의 분지의 의의와 제약(또는 한계)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통상적으로 어떤 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것의 약점과 결함을 지적한다는 것으로서 오로지 부정적인 의미에서 파악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위에서 본 본래 뜻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해야만 할 것으로서 이 경우의 '비판'은 본래 각 부분에서의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의 분별과 전체적 연관에서의 조정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위 내용에 따라 비판의 의미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을 지적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 자료 수집이 있어 이상 논지에 따라 보통 역자의 글에서 수용된 번역서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는 경우는 모두 비판적 수용 태도라고 코딩하였다. 또한, 다른 입장 혹은 학문

특성을 대조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용도 비판적 번역 수용 태도라고 본다.

예외로 예를 들면, 한국의 언론학자들이 '독일 언론학 연구'를 수용할 때 역자 서문에서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커뮤니케이션 학문은 경험 실증주의 이론 정향을, 그리고 독일 대학에서 연구하는 커뮤니케이션 학문은 다분히 비판적(역사-변증법적) 언론학 정향을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지적하였다. "두 학문적 연구 경향은 패러다임 구성 자체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음이 판명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또한 한국 국내에서도 독일적 언론학 이론이 없기 때문에 여덟 명 학자가 "독일 언론학 같은 내용이나 모양의 특징을 우리가 작업해내야 한다는 학자적 소명 의식에 의해..."라는 점에서 독일 언론학을 대표할 수 있는 논문을 엮어서 번역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 본고는 비판적 수용 태도라고 간주하였다. 또 다른 예는 중국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란(*Introduction to Media Communication*)」라는 원서를 교과서로 수용했는데 뒤에서 중국의 학자가 중국의 상황을 쓴 글을 붙인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경우도 본고에서는 비판적 수용 태도로 간주하였다.

기타 수용 태도

마지막으로 기타 수용 태도는 역자 글에서 수용의 원인이나 목적에 관한 담론 내용을 규명하지 않는 번역서들을 가리킨다. 주로 원서의 학술

정보만을 토론하거나, 저자에 대한 소개만 있고, 혹은 저서에 대한 요약만 있는 경우에 기타 수용 태도로 분류하였다. 또한, 번역 수용의 원인은 말했지만 정확한 수용 태도를 규명하지 않는 경우도 기타 수용 태도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아시아의 인터넷 정치 커뮤니케이션」(2005) 역자는 서문에서 "그냥 매력적이어서 번역했다"고 말하였다. 「제국과 커뮤니케이션」(2008)의 원서는 1950 년대 쓴 글이지만 클래식한 저서이기 때문에 번역 수용했다. 또한, 서문에서 "학술 교류를 위해 번역하였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상 모두 기타 수용 태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미디어방정식: 컴퓨터, 텔레비전, 뉴미디어를 실제 사람과 장소처럼 다루는 방법」(2001)은 양국에 모두 있고 미디어 사상으로 분류되어, 양국이 모두 구체적인 번역 태도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기타 수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일본 매스커뮤니케이션사」(2000) 역자 글에서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구미 언론 발달사, 미국 언론사, 중국 언론사 등 제 외국의 언론사를 다룬 서적들은 나와 있지만, 일본의 언론 역사를 체계적으로 다룬 책이 없어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역시 상기 세 가지 수용의 분류로 간주하기 힘들므로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서문이나 후기 및 역총(譯叢) 서문이 없는 경우, 번역 태도를 판단할 수 없어서 해당 없음으로 하였다. 세 가지 수용 태도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4.6〉과 같다.

〈표 4.6〉번역자 번역 수용의 태도 분류

기본지식소개적	국내 연구 영역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해 오는 것 일반 교양을 위함 기성 문제에게 참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 기본 지식 교재로 삼을 수 있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문서임 이 영역의 모든 지식을 제공함으로서 도움이 됨 이 영역의 학생이나 종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심화지식수입적	국내 커뮤니케이션학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주는 것 아직 국내에 이런 현상이 없지만 서구에 존재하여 우리에게 시사할 수 있음 우리 사회의 발전 중 반드시 만날 문제라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음 국내 같은 영역에 있는 연구에 추진력이 있음 국내도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책의 수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 또 다른 연구 방법을 시사할 수 있음 국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학의 새로운 발전 동향을 제시하며 국내도 이러한 영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
비판적	원서에서 소개한 이론이 일부분 나라에게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론을 빌려쓸 때 국한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원서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견해를 서술한 다음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지적함 다른 입장 혹은 학문 특성을 대조하기 위해 번역 저자의 학술 배경 때문에 저서에 부족함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 부족함을 지적함

제 5 장 연구 결과 및 비교 분석

본 장에서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연구 문제를 답하는 동시에 연구 과정 중 연구 문제가 미치지 못한 양국의 차이점도 제시하겠다. 양국의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연구 결과 도출하기 위해, 우선 양국의 번역서 상황과 구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번역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문제 1 에 답하고 양국의 번역 수용 양상의 특징을 제시한 뒤, 번역자의 특성, 즉 번역자의 번역 태도 문제인 연구 문제 2 와 연구 문제 3 을 함께 답하고 비교 분석한다.

1. 중한 학술 번역서 기본 수용양상 및 특징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 중한 양국 번역서의 제목만 봐도 수용한 서적이 많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다. 양국의 번역서는 내용 구성뿐만 아니라 번역 시스템도 많이 다르다. 이렇게 비교 연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의 기본 특징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뒤에서 진행될 차이 비교 분석과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중국과 한국의 번역서 기본 상황을 제시하도록 한다.

1) 중국 커뮤니케이션학 학술 번역서의 특징

전반적으로 제목만 보면 중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이론서, 미디어 이론서, 개론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서가 번역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과 비교하면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지식을 대부분 수용했다. 기초 학문을 세밀하게 수용하고 있지만, 다양성이 부족해 보인다. 다음으로 중국의 번역서 특징을 설명하고 중국 번역서의 전반적 상황을 알아보도록 한다.

중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술 번역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거의 90% 이상의 학술 번역서들이 역총(譯叢)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역총의 출판은 대학 출판사별로 되어 있었다. 2000 년 이후에 중국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이 신문학과 같은 등급의 학문으로 격상되었는데, 국내에서 커뮤니케이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대학교 단위로 번역 수용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2004 년 이전의 번역서 총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고교교재역총·커뮤니케이션' 과 같은 상징적 제목이 책 표지에 나와 있다. 그것은 총서로 편집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준다. 즉 체계화된 시리즈 교재를 만든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보통 총서가 출현한 연도에 번역서의 수량이 다른 연도의 수량보다 많았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번역서가 역총에 속했으며, 그러한 역총들은 주로 교재로 삼을 수 있는 입문 지식을 위주로 번역 수용하였다. 교재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커뮤니케이션학의 한 분야의 지식 상황을 소개한 목적 역시 반드시 수록돼 있었다. 또한, 역총에 있는 번역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일반 수용의 단행본 번역서보다 목적성이 강하고, 학문 기반의 지식 내용을 많이 수용하였다고 본다.

서총에 소속된 번역 서적들을 보면 대부분 번역서에 역자 서문이 없더라도 역총의 서문이 반드시 실려있다. 이것은 중국 번역서 상황의 두 번째 특징이고, 바로 중국에서는 개인이 혼자 번역 작업하기보다는 공동 번역 작업을 주로 진행했다는 뜻이다. 총서(叢書)들의 저작권 페이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총서들이 모두 편위회의 협동 노력하에 출판되었다고 한다. 편위회 구성원은 항상 유명한 커뮤니케이션의 대가 혹은 학자 두 명이 편엮 책임자 역할을 맡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주로 북경대, 전매대, 청화대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개설한 유명한 대학교의 전공교수들이다. 교수가 아니더라도 학계에서 유명한 전공학자들이다. 그러나 저작권 페이지에 적여 있는 편위워회 구성원은 번역자의 명단에서 확인이 어려웠다. 편위회 구성원들은 번역 작업 대신 번역 선택이나 감수를 했다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다. 또한 총서의 서문에서 항상 이번 번역 작업을 맡은 책임 번역원의 사회적 신분을 언급했다. “책임 번역원은 국내 커뮤니케이션 분야 유명한 학자, 전문가, 유학생 혹은 대학 교수다.” 그러나 실제 공동번역인 경우 책임 번역자 명단 확인이 어려웠다.

편위회 구성원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야 할 부분은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 수집된 번역서 서총에 실린 편위회 구성원 명단이 중복된 경우가 많았다. 2000 년에 출판된 한 총서에서는 구성원으로 있지만 2005 년에 출판된 총서에서는 책임자가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즉 서총의

출판 상황이 많이 다르더라도 편위회 구성원은 인원의 상황이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수용해 온 번역서 대부분이 다 역총으로 출판되어 역총만 살펴봐도 중국의 번역 출판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역총이 어떤 역총인지 어느대학에서 출판했는지는 다음 〈표 5.1〉로 제시했다. 하지만〈표 5.1〉에 제시된 역총(譯叢)들은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역총(譯叢)들일 뿐 전부가 아니다. 다른 역총을 예로 들면, 2006 년 이후 대학교 같은 공적 출판사가 아닌 개인 출판사인 '상하이역문출판사 (上海譯文出版社) ','중앙편역사 (中央編譯社) ','강소성 인민출판사 (江蘇省人民出版社) ' 등 에서도 훌륭한 역총이 출판되었다.

2000 년에 커뮤니케이션학 학과 건설과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북경광파학원(중국 전매대학교 전신)이 화하출판사(華夏出版社)와 공동 엮은 '고교경전교재역총·전파학(高校經典教材譯叢 • 傳播學)',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출판사가 20 세기말에 서구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영역에 있는 대표적인 논저를 번역해 학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여 본토화 연구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출판한 '문화와 전파역총(文化和傳播譯叢)', 중국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출판한 '전파여 문화역총(傳播與文化譯叢)'는 20 세기 서구의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용하여 중국 커뮤니케이션학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남경대학출판사가 출판한 '당대학술프리즘역총(當代學術棱鏡譯叢)'는

90 년대의 새로운 이슈과 성과를 수용하는 동시에 아직 중역본 없는 중요한 외국논저를 수용했다.

〈표 5.1〉 중국 연도별 역총의 상황

연도	총서명	출판사	연도	총서명	출판사
2000	高校經典教材譯叢・傳播學	華夏出版社	2004	新聞與傳播學譯叢・國外經典教材系列	人民大學出版社
2000	文化和傳播譯叢	商務印書館	2004	世界傳播學經典教材	北京大學出版社
2000	傳播與文化譯叢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國外傳媒經濟管理經典譯叢	中國傳媒大學出版社
2000	當代學術棱鏡譯叢	南京大學出版社	2005	新聞傳播學譯叢經典系列	人民大學出版社
2000	新聞傳播學譯叢	新華出版社	2005	影視傳播主流教材譯叢	華夏出版社
2001	當代學術棱鏡譯叢（媒介文化系列）	南京大學出版社	2005	傳媒產業與管理譯叢	清華大學出版社
2001	大眾傳播精品譯叢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新聞與傳播學譯叢. 傳播學研究方法系列	人民大學出版社
2002	清華傳播譯叢	清華大學出版社	2006	新世紀傳播研究譯叢	復旦大學出版社
2003	當代學術名著（新聞傳播學譯叢・大師經典系列）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6	復旦博學. 傳播學系列教程	復旦大學出版社
2003	新聞與傳播系列教材・翻譯版	清華大學出版社	2007	“我知道什麼？！”叢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3	傳播・文化・社會	華夏出版社	2007	未名社科. 媒介環境學，媒介與社會譯叢	北京大學出版社
2004	西方新聞傳播學經典文庫	新華出版社	2009	歐洲新聞與傳播學名著譯叢	中國傳媒大學出版社
2004	新聞傳播學譯叢・大師經典系列・雙語版	中國傳媒大學	2009	傳播概念譯叢	復旦大學出版社

*주의: 이상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명의로 출판된 역총들이고, 전부가 아님.

중국에 수용된 학술 번역서의 90% 이상은 역총에 속하기 때문에 일부 번역서에는 역자의 글 없다. 또한, 역총 시리즈로 번역 수용을 하는 점에 따라 대부분 번역서의 수용의 원인이 일반 단행으로 된 번역서의 수용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 권 한 권 수용하는 대신 집단으로 수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대적 특징도 보일 것이다. 특히 역총의 발간사들을 살펴보면, 2000 년 초기에는 주로 학습에 목적을 두어 외국의 교과서를 많이 번역 수용을 하였다. 더 나가 문화의 중요성을 제기하였고 전파 및 문화의 이름으로 역총을 만들어서 수용하였다. 2009 년 들어 미국과 영국에서 수용을 많이 하다 보니 학문의 편향을 피하기 위해 유럽의 학술 명저를 골라서 역총으로 만들어 출판하였다.

이상은 중국의 번역서 특징이다. 상기 특징만을 가지고 중국에는 수용해 온 커뮤니케이션 학술 번역서들을 교재로 삼을 수 있는 기초 지식이 많으며, 개인보다 공도 번역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내용이 포괄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2).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 학술 번역서의 특징

전반적으로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 번역서 수용 상황을 보면 중국만큼 세밀하게 수용을 하진 않지만, 중국보다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수용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와 방법론 같은 입문서도 수용하였다.

사실 중한 양국 커뮤니케이션 학술 번역서를 비교분석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술 번역서의 경계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그 것은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술 번역서가 사회과학 분류에 분산되어 있고, 사회과학의 하위 학문으로서 항상 다른 학문의 특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런 여건 하에서 비교를 진행해야 하는데, 한국의 일부 번역서는 중국에서 아직 번역출판이 안 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혹시 나중에라도 번역 출판되면 다른 학문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과 비교하면 이 점을 한국 학술 번역서 수용 양상의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면, 「감성과 커뮤니케이션」(2000), 「위험커뮤니케이션」(200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2001), 「미디어 비즈니스」(2003), 「미디어와 담론」(2004), 「미디어와 폭력」(2006), 「미디어 스포츠 그리고 사회: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2007), 「프레이밍과 공공생활 : 미디어와 사회현실에 대한 이해」(2007), 「모바일미디어와 새로운 인간관계 네크워크의 출현: 휴대전화는 사회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2009), 「미디어 경제 경영론: 이론과 방법」(2009)등 같은 번역서들은 다른 학문 분야와 연결된 특성이 강하다. 「미디어 경제 경영론: 이론과 방법」(2009)만 제외한 이러한 번역서의 주제 영역은 중국에서도 연구가 있지만, 아직 외국에서 수용한 번역서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비교해보면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수용 학술 번역서의 특징은

중국보다 주제가 다양하고 주제 내용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며, 다른 학과와의 연관성도 강하다. 번역서의 주제 내용은 커뮤니케이션학에 국한돼 있는 것보다 미디어와 같은 특정 영역의 주제를 수용했고 현재의 사회문제과 관련 있는 번역서를 수용했다.

중국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비교해야 하는 한계를 떠나서 한국의 수용 상황을 설명하자면 '한국방송진흥회'의 지원으로 출판된 방송 학술 번역서나 문화연구와 관련 학술 번역서가 많았다. 또한, 정보 시스템학과와 연관성 있는 번역서도 적지 않았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언론정보학과에서는 하위 연동된 전공인 정보문화 커뮤니케이션 코스도 개설하였다. 전반적으로 특정 영역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술 번역서의 번역자를 살펴보면, 개인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부분 많아야 세 명이 공동 번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번역자는 주로 재학 교수 혹은 한국언론학회나 한국방송진흥회의 지원으로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2. 비교분석 및 연구 결과

1). 번역 수용 기본 양상 차이 결과 및 분석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연구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가까운 최신 연도와 더 광범위한 중한 양국 커뮤니케이션학의 전체 수용 양상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점이 본고의 한계이다. 실제 중국과 한국은 사회 배경, 문화

배경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학도 다르게 설계되었다. 상술한 바와 함께 양국의 번역서 특징과 번역 시스템도 많이 다른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는 연구 방법 부분에서 양국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하여 진행하였다. 비교 가능하다고 해도 동일한 기준에서 양국을 바라볼 수는 없다. 연구 문제 이외의 차이점도 많기 때문이다. 우선 양국의 도서 분류 시스템이 많이 다르고, 게다가 한국의 수용 번역서가 사회과학 분류 전체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 한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속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약간 거리가 있는 번역서를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한된 분과에서만 양국의 번역 수용의 차이를 분석하게 되었지만, 어느 정도 양국의 기본 양상의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의 순서에 따라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본고 분석 과정 중에 미치는 차이점이 연구문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양국에서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 중복 출현된 번역서는 모두 제외하였다.

〈표 5.2〉중한 연도별로 학술 번역서 권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중국	16	8	4	10	22	20	15	9	16	25	145
한국	8	21	11	8	5	12	15	12	13	16	121

연구문제 1. 중국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 번역서의 수용 기본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전 양국의 기본 상황을 알아야 한다.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 비교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된 양국 번역서의 수량은 중국 145 권, 한국 121 권이다. (〈표 5.2〉 참조) 연도별로 수치 변화에 따르면, 중국은 2000 년에 많이 수용했고, 2002 년과 2007 년 가장 저조했지만, 2004 년과 2005 년에 고조를 보이며, 또한 2009 년 다시 최고치를 보인다. 한국 같은 경우 2000 년부터 2001 년까지 가장 많이 수용하다가, 2004 년에 5 권까지 떨어진 다음 2009 년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양국 모두 특히 2009 년에 많이 수용하였다. 양국을 함께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중국은 연도별 수용 추세에 있어 많은 변동이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1-1. 고전과 신서의 선택에 차이가 있는가

양국에서 고전과 신서의 선택에 차이가 있는가에 답하기 위해 원서출판연도를 자료 수집하였다. 여기서 번역서 출판연도와 원서 출판연도 차의 평균치(원서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총 권수에 제외함)를 찾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양국의 고전과 신서의 선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결과 중국 6.90, 한국 5.15 으로 양국 간 1.75 년의 차이가 존재한다. 불과 2 연도 안돼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학이 20 세기 말에 생산된 젊은 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 실제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중한 양국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2003 년에 들어 2000 년 전 출판된 원서 중 1 권만 포함된다. 2003 년 이후 한국에서는 외국 커뮤니케이션 고전 서적의 번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서출판연도가 2000 년 전인 번역서 권수는 2005 년 12 권 중 4 권, 2006 년의 15 권 중 6 권이다. 물론 후에 2000 년 이전의 원서 수용이 없지는 않았지만, 특히 2006 년부터 2009 년까지 대다수의 번역서는 원서출판연도와의 차이는 항상 2~3 년에 불과했다.

중국의 2003 년 10 권 중 7 권 원서 출판연도가 2000 년 전의 것이다. 2004 년까지도 22 권의 번역서 중 11 권의 원서출판연도가 2000 년이다(단 원서출판연도가 2000 년인 번역서가 5 권이다). 2005 년에 들어와 20 권의 번역서 중에 2000 년 전의 원서가 7 권이다. 따라서 2005 년까지를 중국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자료를 근거로 양국이 원서출판연도의 선택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학은 짧은 시간 내에 급속하에 생성된 신생 학문으로서 고전과 신간 간의 차이가 길어야 40~50 년에 불과하다. 원저자가 성숙한 이론서를 창출할 때부터 출판발행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이 큰 차이를 보이 않는다고 본다. 연구문제 1-1 에 답하면, 양국은 고전 및 신간의 선택에서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중한 양국이 고전과 신간의 선택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즉 양국이 커뮤니케이션학을 수용 시간 차원에서 양국 커뮤니케이션 학문 간의 거리, 즉 수입 시기의 차이로 인한 문제들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2. 중한 양국이 번역 국가별에 차이가 있는가

나라별로 비교하면, 양국 모두 여러 나라의 우수 논문으로 엮은 논문집 같은 경우는 원서 나라를 수집할 수 없다. 그래서 번역 국가별의 비교 분석 중 이러한 원서 나라가 명확하지 않는 논문집을 제외하고, 중국 144 권과 한국 116 권을 나라별로 비교하여 분석했다.

중국의 경우는 선두 4 위를 차지한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이고, 전체의 지식 수용에서 각 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1.8%, 16.67%, 12.28%, 6.14%다. 특히 미국은 89 권으로 전체 144 권의 번역서 수용에서 61.82%로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의 경우 선두 4 위를 차지한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이다. 전체 지식 수용에서 각각 52.5%, 20.6%、8.6%、7.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수용이 전체의 52.5%를 차지하면서 기타 나라에 대한 수용 대비 전반으로 많았다. 이렇게 보면 양국에서 가장 지식을 많이 수용해온 1, 2 위 나라가 미국과 영국이고, 모두 미국에 강한 의존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 결과 중국은

한국보다 미국에 대한 지식의 의존성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한 양국은 지식의 식민성문제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

지식 수용의 의존성이 가장 높은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수용 나라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양국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3〉를 참고하면 중국은 프랑스와 캐나다에 대한 수용이 한국보다 많고, 한국은 일본과 독일에 대한 수용이 중국보다 많았다. 그리고 중국은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부터 수용한 부분이 있지만, 한국은 이 나라들로부터 수용한 부분이 없었다. 한국은 호주, 인도. 싱가폴, 유럽 전체를 단위로 도입한 것이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없었다. 이로써 중국과 한국은 번역에 수용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국가별로 수용한 나라의 다양성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 1-2 는 중한 양국은 번역 국가별에 차이가 있다고 답할 수 있다. 특히 국가별로 수용 나라의 다양성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더 다양한 나라로부터 지식 수용을 했다.

〈표 5.3〉중한 나라별 학술 번역서 권수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인도	싱가폴	유럽	합계
중국	89	24	14	7	4	4	1	1	0	0	0	0	144
한국	61	24	4	1	10	9	0	0	1	1	1	4	116

1-3. 교과서 번역 비중에 차이가 있는가

양국의 교과서 수집 상황은 좀 다르다. 우선 모두 역자 서문, 목차에서 교과서로 표시된 바와 각 장마다 뒤에 연습 문제나 토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수집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역자 서문과 목차만 알아볼 수 있고 책을 한권 한권 모두 펼쳐 볼 수 없는 상황에서「전국총서목(全國總書目)」를 참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에서 단 "고교교재역총"(즉 전문 대학에서 쓰는 교과서 시리즈 역총) 은 4개 정도 있다. 교재역총은 주로 2000년, 2004년과 2005 년, 2006 년, 2008 년에 나타났다. 앞서 2000 년부터 20009 년까지 총 26 개 역총이 나왔다고 했고, 그러한 역총에 속한 번역서들의 목적은 주로 교과서로 쓰인다. 또한 중국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교과서로 쓰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참고서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역총에 속한 모든 번역서를 교과서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중국에서 권위적인「전국총서목(全國總書目)」에 기록된 것과 일치한 교과서의 수량을 통계했다. 그 부분만 이미 41 권의 교과서가 집계되었고 전체 학술 번역서의 28.28%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교과서가 보수적으로 수집된 것과는 반대로, 한국의 교과서는 개방적으로 수집되었다. 우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학부 교과서와 역자 서문에서 대학원이나 학부의 교재 혹은 참고교재로 표시된 모든 번역서를 수집하였다. 단 입문서나 도구서라고 역자가 글에서 언급했지만, 대학 교재로 삼고 있다는 내용이 없으면 모두 제외하였다. 종합해 보면 총

19 권의 교과서가 집계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70%이다.

수집 방법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보수적인 점에서 중국 교과서 비중이 한국 대비 거의 2 배가 많다. 또한, 중국에서는 2001 년부터 2005 년 사이 총 26 권의 교재가 있고, 2006 년부터 2009 년 사이에 15 권의 교재가 있었다. 2001 년부터 2005 년 사이에 한국은 교과서 5 권에 불과했으며, 2006 년부터 2009 년 사이에 총 14 권 교과서가 번역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4〉를 참고. 이점 역시 중한 양국의 교과서에 나타난 큰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21 세기 초의 첫 10 년 동안 중국은 앞에 언급한 5 년동안 교과서를 많이 수입하고, 한국은 뒤의 5 년 동안 교과서를 많이 번역 수용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는 뒤에서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표 5.4〉교과서 빈도와 비율

국별	2000-2005		2006-2009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중국	26	63.41%	15	36.59%	41	100%
한국	5	26.32%	14	73.68%	19	100%

차이를 분석하기 전 연구문제 1-3 의 "중국과 한국의 교과서 번역 비중에 차이가 있는가"에 있다라고 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 분석으로 중국의 교과서 번역 비중은 한국보다 1.8 배가 많다고 본다. 또한, 교과서 번역 비중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교과서가 집중적으로 출판

번역된 연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를 번역 수용하는 것은 당연히 계몽 학습이라는 목적이 있다. 동시에 자국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구축, 학과 지도의 계획하에 교과서의 수용이 필요하다. 연구문제 1-1 의 고전과 신서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에서 왜 교과서 출현 연도는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은 양국의 사회 배경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문제는 21 세기 글로벌화라는 큰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글로벌이라는 큰 문화적 배경에서 글로벌 인재에 수요가 시급해지면서 중한 양국이 국제화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시행했다. 2001 년 12 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다. 방대한 시장개방에 따른 글로벌 인재의 수요 확대로 중국은 수동적인 국제화 인재 양성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런 사회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21 세기 초기 인재 국제화 교육 방침을 단행했다. 이점이 2001 년부터 2005 년까지 중국의 교과서가 많은 이유 중 하나일 지도 모른다. 한국의 경우 1950, 1960 년대부터 이미 국제사회와의 접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1 세기 교육 열풍 인적자원 강국 건설을 위한 우수 고등인력 양성 교육정책인 BK21 (Brain Korea 21) 의 첫 단계를 1999 년~2005 년에 시행했고, 2006 년~2012 년은 2 단계를 시행했다. 21 세기 초 5 년 동안 한국 정부는 인재 국제화 교육을 위해 인재교류, 외국 우수

대학원을 도입하고 공동 교육을 하는 등 교육 개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글로벌화의 변화에 힘입어 양국 정부는 국제화 인재 교육을 위해 많은 인적 자원과 자금을 투입했다. 이러한 시대 배경과 사회적의 정책변화는 모두 교육과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교과서 대부분은 커뮤니케이션 이론,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미디어 이론 등의 기본 지식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의 교과서 내용 대비 다양성과 심도가 떨어진 편이다. 보통 교과서로 선정된 서적은 학문에 대표성이 있거나 이해하기 쉬운 입문서, 또한 심도있는 탐구는 없지만, 학문 분야의 전반적 양상을 보여주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징이 담긴 교과서를 대량 번역 수용하는 것은 학문이 아직 기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만 가지고 전체 학문 양성을 확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 연구문제를 통해 양국의 번역서 수용 양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1-4. 커뮤니케이션학의 분야별 차이가 있는가

이 연구결과를 밝히기 전 여기에서 수집된 번역 서적은 전부가 아니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양국에서 비교 가능한 분야를 먼저 정하고, 해당 분야의 번역서를 취합했기 때문에 제외한 서적들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특히, 방송 영역의 학술 서적을 한국에서는 많이 수용했지만, 중국과의 비교를 위해 많은 부분이 제외되었다. 방송은 중국에서

방송·텔레비전학(廣播電視學)의 이름으로 커뮤니케이션학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도서를 분류했을 때도 커뮤니케이션학과 따로 분류된다. 따라서 여기에 수집된 방송 영역의 번역 서적은 중국의 커뮤니케이션학(즉 전파학)과 광파전시학에 속한 방송 영역에 관련된 부분이다. (더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4장 2절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설정'을 참고) 또한, 양국이 모두 저널리즘 영역이 대한 수용이 많지 않지만 중국은 극히 적었다. 대신 이 영역에서 자국 저자의 저서가 압도적이었다.

이 연구 문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분야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본고는 먼저 연구 분야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연구 영역을 나누어본 다음, 네 가지 연구 영역에 대해 다시 세부화된 분야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이 순서에 따라 먼저 크게 네 가지 연구 영역을 비교 분석하고 네 가지 영역의 세부화된 분과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양국의 차이점을 드러내려 하며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네 가지 영역

양국 비교 가능한 범위는 거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 '미디어 연구', '저널리즘', '방송 문화' 네 가지 영역이다. 하지만 규명해야 할 것은 중국의 학술 번역서 중에 두 권 (《 西方新聞傳播學名著選擇》 2008 , 《娛樂至死、童年的消逝》 2009)이 여러 번역서를 하나의 합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총 권수는

145권이 아닌 143권으로 다음 비교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내용에 따라 진행한 분류는 다음 〈표 5.5〉와 같다. 표에 제시된 수치를 보면 양국이 네 가지 영역에서의 수용 수량의 추이가 같다. 즉 가장 많이 수용한 영역이 미디어 연구 영역이고, 그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 마지막으로 저널리즘과 방송문화 연구 영역이다. 양국의 번역서 수량이 각 연구 영역에서의 분포가 일치해 보이지만 비중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의 미디어 연구 영역이 전체 번역 서적의 47.1%로 절반에 근접한다. 중국은 50.3%로 나머지 모든 연구 영역 번역서의 합보다 더 많았다. 두 번째로 차지하는 연구 영역은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각각 중국 33.6%, 한국 25.6%. 또한, 중국이 저널리즘 영역의 번역 수용이 11.0%과 방송문화 영역의 번역 수용 4.14%로 모두 한국의 10.7%과 15.7%의 비율에 비해 적었다.

〈표 5.5〉 연구 종류별 따른 분류

국별	커뮤니케이션연구		미디어연구		저널리즘		방송		합계	
	권수	%	권수	%	권수	%	권수	%	권수	%
중국	49	34.3	72	50.3	16	11.2	6	4.2	143	100
한국	32	26.5	57	47.1	19	15.7	13	10.7	121	100

이상 네 가지 큰 분류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중한 양국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각 분야에 분산된 수치를 살펴보면 한 분야에서만 집중적으로 수용한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차이점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상 분류의 기초에서 다시 세부화해 더 구체적인 내용의 분석하여 양국의 차이를 나타내도록 한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세부화 분야

먼저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음〈표 5.6〉를 그려보았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분석 유목 코딩을 참조)다음 표에 나타난 차이점에 따라 서술한다.

표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 번 커뮤니케이션 개론 및 이론에 대한 양국의 수용 상황이다. 중국은 1 번 세부 분야를 가장 많이 수용하였다. 즉 중국은 커뮤니케이션 기본 지식인 개론 및 이론을 대량 번역 수용하였다. 그다음으로 3 번 커뮤니케이션사 및 사상 세부 분야와 4 번 매스 커뮤니케이션 세부 분야를 많이 수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차이는 중국에서 번역 서적이 미치지 못한 11 번 커뮤니케이션 새 영역인 세부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수록된 번역서는 각각 위험 커뮤니케이션 3 권,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2 권, 감성 커뮤니케이션 1 권, 그리고 에이징 커뮤니케이션 1 권이다. 이 세부 분야는 모두 최근에 진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주제 분야이다. 추가 설명으로 위험 커뮤니케이션 3 권 번역서를 살펴보면 모두 성균관대학교의 신문방송학과 송해룡 교수가

모두 번역했다. 한 분의 학자가 한 영역을 지속적으로 집중 번역 수용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번역 수용 방식이 공동 번역 보다는 개인적인 관심으로 번역 선택한다는 점을 방증한다. 마지막 특징은 양국 모두 4 번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번역 수용한 점이다.

〈표 5.6〉커뮤니케이션 연구 세부 분야별 권수 비교

분야별	중국	한국	분야별	중국	한국
1.커뮤니케이션 개론 및 이론	13	4	7.정치 커뮤니케이션	1	1
2.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	5	4	8.국제 커뮤니케이션	5	1
3.커뮤니케이션사 및 사상	8	2	9.문화간 커뮤니케이션	2	2
4.매스 커뮤니케이션	7	6	10.커뮤니케이션 사회문화	5	2
5.인간 커뮤니케이션	1	2	11.커뮤니케이션 새영역들	0	7
6.조직 커뮤니케이션	2	1			

또한, 내용에 따른 분류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즉, 2 번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 (이 세부 분과에 수록된 번역서는 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 커뮤니케이션 역사연구방법 등 커뮤니케이션학의 전체 입장에서 한 연구방법이다) 중에 「매스미디어연구」 (이 번역서는 중한 양국에서 모두 수용했다. 중국의 경우 2005 년의 제 7 판, 한국의 경우 2009 년에 제 8 판이다) 의 목차를 살펴보면 미디어 관련 연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질적, 양적

연구방법의 통론이었기 때문에, 양국에서는 모두 '미디어 연구방법'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의 세부 분과로 분류되었다. 또한, 양국의 또 다른 동일한 번역서 「제국과 커뮤니케이션」는 모두 커뮤니케이션사 및 사상으로 분류되었다.

또 한가지는 한국의에서 「코무니콜로기: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2001)이라는 번역서가 '인간 커뮤니케이션' 분과에 들어있다. 번역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분으로 역사적, 철학적 그리고 기호학적의 보완이기 때문에 5 번 인간 커뮤니케이션 분야로 분류되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의 세부화 분과들을 살펴보고 이 영역에서 양국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중국이 한국보다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의 기본 이론을 많이 번역 수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11 번 커뮤니케이션 새로운 영역 대해 중국은 아직 번역 수용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중국은 새로운 학문 영역 수용이 한국 대비 뒤처진다고 판단된다.

미디어 연구의 세부화 분야

21 세기는 미디어 시대다. 양국 모두 미디어 연구 번역서를 대량 수용했고, 모두 이 분야 대한 관심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늘 날과 같은 미디어 시대에는 미디어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침투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가 사회와 국가 발전의 역량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연구 영역의 세부 분야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많이 수용한 분야는 그 나라의 관심 분야로 그 나라가 무엇을 하려 하고, 또한 어느 발전 단계에 처해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으로 양국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양국의 관심 분야도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 연구 영역을 모두 10 개 세부 분야로 나누었다. 실제 이 분야의 번역서를 살펴보면 양국에 모두 다양한 주제 내용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분류 기준을 좀 만들어보았다. 오늘 같은 미디어 사회에서 미디어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도 우리의 일상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세부 분야 중에는 2 번 미디어 연구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 유목 코딩 부분에서 제시하였지만 여기서 또 설명하자면, 2 번 미디어 연구는 뉴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매체의 연구, 그리고 미디어로 인해 달라지는 삶의 환경과 일상 미디어 현상이 모두 이 분야에 포함된다. 따라서 〈표 5.7〉를 보면 양국이 모두 2 번 세부 분야의 번역 수용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세부 분야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수용한 내용이 새롭다고 느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국의 「전화의 재발견」, 블로그와 시민권 그리고 미디어의 이해」, 「하이퍼텍스트 3.0」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수용하였지만, 중국이 전문 뉴미디어 지식에 대한 수용이 별로 없었다. 대신 중국이

미디어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해 많이 수용하였다. 이것은 양국이 실제 겪고 있는 사회 상황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중국에는 관심사이자 차이점이기도 한 세부 분야는 3 번 미디어사이다. 이 분야에 수용한 번역서를 살펴보면 7 개 중 5 개가 다른 나라(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서구)의 매스 미디어사이다. 이 점이 중국 매스 미디어가 발전한 시기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표에 제시한 미디어사 세부 분야에서 수용이 없었다.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의 미디어사를 참고한 시기를 지나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비교해 보면 중국은 4 번 '미디어 사상/철학' , 7 번 미디어 정치/민주주의/정책 연구와 9 번 '미디어 경영/경제/산업' 분야에서도 많이 수용하였다. 이 3 개 세부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중국 사회에서 미디어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미디어 실제 운영 과정 중의 주의점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미디어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와 경영 및 경제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 대비 10 번 미디어 기타에 대한 수용이 없었다. 이 부분의 번역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 「미디어 교육」, 「미디어와 폭력」, 「미디어와 건강」 그리고 미디어 스포츠의 관련 번역서들이 있다. 이런 주제의 번역서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표 5.7〉미디어연구 세부 분야별 권수 비교

분야별 /권수	중국	한국	분야별 /권수	중국	한국
1.미디어 이론 및 방법론	5	5	6.미디어 수용자/효과 연구	7	2
2.미디어 연구	14	16	7.미디어 정치/민주주의/정책 연구	8	6
3.미디어사	7	0	8.미디어 윤리	3	2
4.미디어 사상/철학	11	7	9.미디어 경영/경제/산업 연구	10	5
5.미디어와 사회, 문화	7	6	10.미디어 기타	0	7

*주의: 이상 세부 분야에 포함된 번역서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모두 핵심 주제를 따라 혹은 번역서 내용의 편중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 5.7〉에 미디어 연구 세부 분야를 제외한 양국의 수치 분포를 보면 한국의 수치는 분포되어 있지만, 중국은 두 세 군데에 편중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통해 다시 한 번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의 세부 분야에 얻었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하기 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의 '뉴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세부 분야의 번역서가 많은 이유, 그중에서도 「뉴미디어 백과사전」이라는 학술서는 두꺼워 번역자가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주제별로 정리하고 나눈 후, 다른 제목으로 총 세 권의 신서를 출판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예술과 법률의 최신지식」, 「우리 시대의 디지털 거인들」, 「디지털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해킹의 최신지식」 3 권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뉴미디어를 주제로 하는 번역서의 수용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양국은 미디어 연구 영역의 세부화 분야에 격차가 존재한다. 양국이 모두 자신이 속한 사회 환경 관련 내용을 번역 수용하였다. 번역서를 떠나서 그 배후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세미디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같은 관심 분야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양국의 관심 분야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은 미디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디어 사회로 변혁가는 과정에 처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미디어 기술이 필요하고 사회 전체에 미디어 분야 글로벌 인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한국은 미디어 강국이며, 미디어가 사회 생활 곳곳에 침투해있다. 따라서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모색하고 있고 더 좋은 미디어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저널리즘연구와 방송 연구의 세부화 분야

이 두 영역을 함께 분석하려고 한 이유는 본고의 연구대상에 대한 선정 문제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 중국의 커뮤니케이션학은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신문전파학)의 하위 학문으로 저널리즘과 방송 TV 학(廣播電視學)과 같은 등급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과학 분류에 분산돼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중국의 도서관 분류에서는 커뮤니케이션학이

따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저널리즘(한국 도서분류 070)과 방송 부분의 일부분, 즉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속한 부분을 취해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두 영역을 추가 분야로 삼고 함께 비교 분석을 하려 한다.

다음으로 우선 '저널리즘' 주제 분야별 수치 분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한다. 〈표 5.8〉를 보면 중국은 저널리즘 및 저널리즘사 세부 분야의 번역 수용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은 언론 세부 분야의 번역 수용이 가장 많았다. 또한, 중국은 '도덕, 규범'에 대한 수용이 다른 분야 대비 좀 많았다. 한국은 위험보도와 환경 저널리즘 세부 분야에서 수용이 있는 반면 중국에는 이 분야에 대한 수용이 없었다.

〈표 5.8〉저널리즘 세부 분야별 권수 비교

분야별/권수	중국	한국	분야별/권수	중국	한국
저널리즘 및 저널리즘사	7	2	저널리즘과 정치 민주주의	1	3
도덕, 규범	4	1	위험보도	0	3
언론	2	5	환경저널리즘	0	2
저널리즘 사업/경영	2	3			

방송 세부 분야의 상황을 알아보기 전 실제 한국의 방송 문화 연구가 많았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중국보다 많았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한국 방송 문화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문회진흥회의 자금적 지원하에 번역 출판되었다.

비교분석은 다음 〈표 5.9〉를 참고한다. 한국은 '방송 문화'와 '방송 제도 정책' 세부 분야에서 중국보다 수용이 많았다. 방송 사업 경영 세부 분야에서는 양국의 역서는 1 권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방송 영역에 있어 중국 번역서의 수로 따지면 이것도 어느 정도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표 5.9〉 방송 세부 분야별 권수 비교

나라/분야	방송문화	방송 사업 경영	방송 제도 정책
중국	3	2	1
한국	7	1	5

양국의 사회 제도와 배경을 고려하면 그 의문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은 중앙 TV 방송국(中央廣播電視臺즉 CCTV)의 독점하에 방송된다. 저널리즘도 마찬가지로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가 독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널리즘과 방송에서 모두 외래 수용이 많지 않은 점 대신 자국의 저서가 많았다는 것을 자료 수집과정에서 발견했다. 저널리즘과 방송은 모두 커뮤니케이션과 언론 통제가 가장 효율적인 매스 미디어로 사회제도가 다른 중한 양국이 다른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방송제도정책 분야에서는 양국의 번역 수용 내용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의 유일한 방송제도 분야 번역 관련 책의 내용은 미국과 영국의 예시로 한 '디지털 텔레비전과 정책의 변천' 한 권뿐이다. 한국은 기술적인 것의

수용보다 정책, 규제, 독립, 효과 그리고 방송 수행의 전체 과정을 중요시했다. 이 점에서 양국의 사회 제도에 따라서 수용 내용도 크게 다르다고 본다.

따라서 저널리즘과 방송 영역의 세부 분과의 비교를 통해 두 영역에 모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양국의 수용 상황은 양국의 사회 제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연구 문제 1-4 커뮤니케이션학에 분야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전부 살펴보았다. 이 연구 문제에 대해 본고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연구, 미디어 연구, 저널리즘 연구 및 방송연구 4 가지 영역의 내용을 세부화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용 내용을 토대로 양국의 관심사를 찾아보고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양국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 4 가지 영역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리자면 양국은 커뮤니케이션학의 분야별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세부 분과까지 차이가 났다는 것은 양국 지식의 기반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1 을 다시 정리하면, 연구 문제 1-1 통계를 보면 양국은 고전과 신서 선택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 연도별 번역서를 찾아보면 원서출판연도에서 양국이 차이를 보였다고 본다. 연구 문제 1-2 중한 양국은 번역 국가별 차이가 있었고, 특히 한국은 수용 나라의

다양성이 중국보다 다양했다. 연구문제 1-3 양국은 교과서 비중에서 차이가 많이 났을뿐 아니라 교과서가 출현된 연도에도 차이가 났다. 특히 중국의 교과서 비중은 한국보다 많았다. 연구 문제 1-4 양국은 커뮤니케이션학의 분야별 차이가 많았다. 이상 연구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연구 문제 1중국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 번역서의 수용 기본 양상에 차이가 많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번역자 번역 태도 중심으로

번역자는 번역 수용 과정 중의 중요한 요소로, 번역자의 신분과 문화 배경도 모두 번역자의 번역 태도를 대표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 유목에서 이미 제시하였다. 따라서 다음으로 진행하는 연구문제 2 와 연구문제 3 은 모두 번역자의 번역 태도와 연관된다. 이 부분에서 먼저 연구문제 2 의 연구결과에 대해 답한 다음 연구 문제 3 과 결합하여 양국의 번역자 번역태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중국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서 번역서의 번역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에 답하기 전 권당 번역자의 수를 확인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번역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145 권의 번역서 중 중국의 번역자 수가 4 명

이상(많으면 9 명까지) 인 이른바 '공동 번역'이 총 32 건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동 번역은 교수 한 명의 지도하에 다수가 작업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한 명이 번역하고 한 명 혹은 두 명이 감수하는 방식 등 10 가지가 있다. 중국에서 번역 작업을 혼자 완성한 번역자는 총 78 명이고, 이는 전체의 53.7%를 차지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뉴스통신진흥회가 두 권 번역서를 번역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총 119 권의 번역서로 집계하였으며, 1 인 번역 작업을 한 번역자는 중국과 동일한 78 명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한다. 즉 번역 작업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1 인 번역자가 더 많다고 본다. 이러한 통계는 중국에서는 40% 이상의 번역서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협의된 번역 수용이라는 점을 방증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수용 번역서 145 권 중 127 권이 역총에 속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번역 수용이 집단에 의해 합의된 상황에서 번역 수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1. 양국의 번역자 신분의 구성에 차이가 있는가?

양국의 번역자 신분은 주로 번역서에 표시한 것과 인터넷에 제공된 인적 사항을 참고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국의 경우 145 권 번역서 중 2 권의 합본이 있고 역자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143 권의 번역서에 대한 번역자 자료가 있다. 그러나 143 권 번역서에 번역자가 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인 경우는 총 73 명이다. 그중 7 명 안팎의 교수가 공동번역에 참여하였는데

번역은 하지 않고 감수만 진행하였다. 따라서 공동번역자의 경우를 포함해 중국에서 번역자가 전공 교수일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1.05% 불과했다. 한국은 반대로 97 명의 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가 번역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17%이다.

또한, 양국 모두 7 명 전문 번역가가 번역 작업을 하였지만 실제 차지하는 비율은 다르다. 전문번역가의 경우 중국은 12 명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3 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하였다.

상기 전공 교수와 전문번역가 2 종 신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양국의 번역자 신분 구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특히, 중국의 경우 번역자의 신분이 다양하다. 전공 박사, 비전공 교수 겸 언어 전문가, 원 언어국에서 살고 있는 저널리스트, 영어 선생님, 해외 대사관에 일을 하고 있는 직원 등이 있다. 특히 전공 교수가 51.05%를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신분의 번역자 역시 전체 번역 수용에서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2-2. 양국의 번역자가 유학 경험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지?

상기 번역자 신분에 대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고찰했을 때 대부분 유학 경험 여부도 함께 실려 있다. 양국의 번역자 유학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역시 큰 차이가 존재했다. 우선 양국은 번역자의 신분과 상관없이 한국에는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가 77.69%로 높은 편인 반면 중국에서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는 23.77%로 아주 낮은 편이었다. 또한,

중국에는 유학 경험 없는 번역자가 41.26%이고, 방문학자 및 경험 있는 번역가는 17.48%였다.

여기까지는 연구 문제 2-1 양국의 번역자 신분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고 답한다. 연구 문제 2-2 양국의 번역자가 유학 경험 여부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고 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문제 2 의 중한 양국의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 번역서의 번역자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번역자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 내용에 대해 이 부분만을 근거로 해답을 결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양국 모두 커뮤니케이션학이라는 외래 지식에 대한 번역 수용 입장에서 번역자 신분과 유학 경험 여부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는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전공 교수 혹은 유학 경험이 더 많은 번역자로 구성되어 번역에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을 살펴보았다. 현재 중국에는 유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유학 후 귀국하는 인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유학 경험 없는 번역자가 너무 많았다. 따라서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 중국 유학 귀국 인원수를 조사해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5.1.0〉를 참고한다.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 중국유학 귀국 인원은 9 천 명에서 10 만 8 천 300 명까지 증가했다. 이들 10 만 명의 유학생이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표 5.1.0〉중국 해외 유학 귀국 인원 통계 (단위: 만명)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학 귀국 인수	0.91	1.22	1.79	2.02	2.51	3.50	4.20	4.40	6.96	10.83

출처:중국해외유학인귀국발전보고 2013 (中國海歸發展報告 2013)

중국해외유학인귀국발보고의 '해귀(유학파) 취업 현황 조사 보고서'에서는 1990 년부터 2009 년 이후까지 귀국한 유학생들에게 '귀국 후의 취업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 결과 총 563 개 답변 중 308 명은 취업했다고 응답했다. 다른 설문 조사에서는 2009 년 후 귀국한 유학생은 86.3%, 1990 년 후 귀국한 유학생은 1.5%, 2008 년 이전 귀국한 유학생은 12.2%로 집계되었다. 308 개 취업 설문 중 귀국 유학생의 9.1%는 두 번째 순위(1 위 금융 및 관련 산업 서비스업, 3 위 전자통신기술, 4 위 생물공학 및 의약, 5 위 문화 창조)가 '교육과 과학연구 영역'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표를 참고하여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보면 중국에서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가 많아야 하지만, 실제 번역 수용에 기여한 유학생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으로 본고의 세 번째 연구 목적을 밝혔다.

또한, 중국의 번역자 신분 구성에는 방문 학자의 경우가 많았다. 중국 교육의 사회 배경을 살펴보면 방문 학자가 많은 이유를 알 수 있다. 2003 년까지 중국 정부는 선진 지식 국가의 학위 취득을 주요 목적으로 유학생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단기 수학 방문 학자의 형식으로 유학 인원을

보냈다. 주지하다시피 방문 학자는 길어야 1 년~ 2 년만 연수하는데 이런 방문 학자가 글로벌 시각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徐蘭 , 許邁進 , 2003) 는 연구에서 중한 양국의 대학원생의 국제화 교육 과정을 비교·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지원하에 1950 년~1960 년부터 한국에서는 이미 유학 열풍이 불기 시작했으며 21 세기인 지금 대학교 교수도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있다. 21 세기에 들어 교육 글로벌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출발이 늦은 편이다.

사회적 원인을 떠나 중국의 제도적 문제도 존재한다. 글로벌 인재를 위한 학술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진지안빈과 왕셔안셔안(金兼斌, 王珊珊)(2005)은 귀국 후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유학생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연구하였다. 1. 유학 경험이 있어서 언어적인 강점이 있지만, 번역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고 창조적인 연구 활동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다. 2. 중국 국내의 학술 연구 분위기와 태도가 외국 대비 낙후하다고 했다.

학술 지식의 경우, 교수나 전문가가 번역을 맡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전문 분야는 전문성, 지식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구자의 태도 등 여러 문제에서 교수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일반적 언어 능통자인 번역가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중국은 전공교수가 번역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았다. 전공교수, 전문가, 번역가를

제외한 나머지 번역자는 주로 다른 전공의 교수 혹은 원서 언어를 전공한 사람들이었다.

상기 연구 결과 및 원인의 탐색을 통해 양국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양국 번역 수용의 차이는 자국의 사회 배경, 사회적 제도, 문화 배경 등에서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술 번역서에 실린 역자의 글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양국의 번역자 번역 태도를 본격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3. 중국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서의 번역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번역자의 번역 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은 역자의 글을 누가 썼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은 실제 역자의 글을 누가 썼는지에 있어 양국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역자 글은 역자 본인이 직접 써서 서문에 많이 실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번역자는 후기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중국은 좀 다양하다. 역자 서문을 역자 본인이 쓰거나 교정자가 대신 쓰기도 하고 책을 번역을 부탁한 사람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었다. 간혹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대신 쓴 경우도 있다. 또한, 역자 글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설명해야 할 부분은 중국에서 역자 본인이 쓴 글이 없는 경우 서총 서문이 있으면 서총의 담론 유형에 따라서 분석했다는 점이다. 역자의 글과 역총 서문이 모두 없었으면 없음으로

기록하였다. 이런 식으로 분석 유목에서 번역의 자세에 따라 나누어진 기본 지식 소개적 수용 태도, 심화 지식 수입적 수용 태도, 비판적 수용 태도의 유형으로 번역서 리스트에 있는 모든 역자 글을 살펴봤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5.1.1〉에 제시하였다.

〈표 5.1.1〉중국과 한국의 번역자 번역 태도 비교

국별	기본적		심화적		비판적		기타		해당없음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중국	73	50.34	36	24.83	6	4.14	17	11.72	13	8.96	145	100
한국	41	33.88	60	49.59	2	1.65	12	9.92	6	4.96	121	100

양국의 학술 번역서의 총권수는 각 145 권과 121 권이다. 모두 중복된 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상기 표를 보면 양국의 번역자가 어떤 태도로, 혹은 어떤 초심을 가지고 번역했는지를 알 수 있다. 〈표 5.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국은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은 기본 지식 소개에 대한 태도가 가장 많았다. 즉 중국의 번역자의 50.34%가 커뮤니케이션학의 기본 지식을 소개했다. 한국은 심화 지식 수입적 태도가 가장 많고, 49.59%가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심화 지식을 도입했다.

3-1. 기본지식 소개에 대한 번역 수용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기본 지식 소개에 대한 수용 태도에서 중국은 전체의 50.34%, 한국은 33.88%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기본지식 소개에 대한 수용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3-2. 심화 지식 도입적 번역 수용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심화 지식 도입에 대한 수용 태도를 보면 중국 전체의 24.83%, 한국은 49.59%로 한국은 심화 지식 도입의 목적에서 중국보다 많이 수용했으며 양국은 심화 지식 도입에 대한 번역 수용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3-3. 비판적 번역 수용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중국의 비판적 수용 태도는 4.14%를 차지하며, 한국은 전체에서 1.65%를 차지한다. 양국은 비판적 수용 태도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중국이 좀 더 많았다.

기타로 분류된 서적이 많은 이유는 2009 년에 출판된 「전파개념역총」(傳播概念譯叢) 4 권 모두 커뮤니케이션 이론서이고, 이 역총의 번역서들이 모두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었는데 수용의 목적을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수용 태도로 분류되었다.

여기까지 연구 문제 3-1, 3-2, 3-3 을 종합해 보면, 연구 문제 3 의 연구 결과, 양국 번역자의 번역 태도에서도 차이가 났다고 본다. 커뮤니케이션학

학술 서적의 번역 수용에 있어서 양국은 물론 사회 문화적 제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번역자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본고 서두에서 유학생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특히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유학생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국이 교육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요인은 20 세기 중기부터의 일어난 유학 열풍 때문일지도 모른다. 유학생들은 유학 경험을 통해, 특히, 다른 선진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자국의 잘못된 사회풍습, 낙후된 사회제도, 잘못된 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본고의 상황을 보면, 외래 지식에 대한 번역 수용의 입장에서 유학생들을 학자와 비교하면 수용국 대한 언어장벽이 없으며, 수용국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학자들 대비 첨단 지식이 무엇인지,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을 수 있다. 또한, 수용국 나라의 문화 배경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수용국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도 자국이 추후에 겪을 문제로서 추정하여 사전 연구를 통해 대책을 미리 강구할 수도 있다.

연구 문제 1~3 까지의 연구 결과를 재 정리하면 첫째, 중한 양국은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학술 번역서 수용 중 고전과 신간에 대한 선택에는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국가별의 수용과 교과서 비중은 모두 크게 차이가 났다. 특히 번역 서적 내용에 따라 진행한 분과에서도 모두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한 양국은 커뮤니케이션학에 대한 번역 수용 내용에 있어 양국 차이가 존재할 뿐 아니라, 한국이 수용한 번역서 내용이 중국보다

새롭고 다른 학문과의 연관성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중국에서 수용된 학술 내용은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고전 분야에 머물러 있으며, 새로운 영역에는 수용이 거의 없다. 둘째, 중한 양국은 번역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자 및 번역자의 번역 태도에도 모두 차이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번역자는 한국의 번역자보다 유학 경험이 많은 번역자의 비중이 작았으며, 전공 교수가 아닌 번역자의 비중도 컸다. 번역자의 번역태도를 보면 기본 지식 소개에 대한 번역 수용이 많았다. 중국 해외귀국유학생 발전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유학 경험이 있는 학자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귀국 후 번역 작업에 시간을 투입하기 보다 여러가지 분야의 연구 영역 성과에 더 치중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진지안빈과 왕샤안샤안(金兼斌,王珊珊)(2005)연구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찾아볼 수 있다.

자국의 사회적, 학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선진국에 유학생을 보내고, 유학생들은 귀국하여 자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본고의 연구문제 2 의 연구 결과에서는 양국 정부가 인재 글로벌화 교육 방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 학술서 번역 작업을 진행한 전공 교수가 중국보다 많다는 것은 한국의 인재 글로벌화를 교육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제 6 장 연구결과와 양국 간 차이의 원인

본고는 세 가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에서 동일한 비교 환경을 조성한 다음, 자료 비교분석과 담론분석의 방법을 통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양국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학술 번역서에 나타나는 차이를 제시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1. 연구결과 요약

분석 결과를 보면, 중한 양국의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 번역서는 원서출판 연도, 번역 수용의 나라별 선택, 나라별 다양성, 번역 수용 내용의 기본 양상 등 미치는 분과의 종류와 다양성에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양국 역자의 신분 구성과 역자 유학 경험 여부에서 더욱 큰 차이를 보였고, 번역자의 번역 태도 비교에서도 차이가 났다. 유학 경험 여부의 고찰을 통해 양국의 유학생들이 전문 학술 번역 수용에서의 기여도를 했다.

중한 양국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 번역서 수용에 대한 비교 결론 (1)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내용에서 중국의 번역수용 내용은 한국보다 뒤쳐져져 있다. 학문적 번역 수용을 제도적으로 설명하면 한국은 확장적인 발전 모습을 보였으며, 중국은 수직적 심화 모습을 보였다. (2) 번역 태도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의 수와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의 수가 한국보다 적었고, 기본 지식 소개에 대한 목적이 많았으며, 개인보다 공동 번역을 수용했다. 한국은 중국보다 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의 수와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의 수가 더 많았고, 심화 지식 수입적 목적이 많았으며, 집단보다 개인이 번역을 더 많이 수용했다.

상기 비교 결론에 기반하여 나타난 차이를 보면, 양국은 교류에 있어 문화적 갈등 발생은 불가피하다. 항상 작은 매듭들이 모여 실뭉치와 같은 큰 문제를 야기 한다. 먼저 각 영역의 작은 매듭을 풀어주는 것은 실뭉치를 푸는 중요한 방법이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오해, 편견,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라 간, 지역 간, 나아가 같은 학문 간의 차이에 대한 원인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시작으로 본고는 마지막 장에 중한 외래 지식 수용 양상의 차이 원인을 탐색하려 한다. 제5장 비교 분석 과정에서 중간에 잠깐 원인을 분석 했지만, 분석 과정에 제시한 것은 원인보다 사회적 배경 및 의미에 더 근접했다. 다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2. 중한 외래 지식 수용 양상의 차이에 대한 원인 추론

분석 과정에서 언급했듯이 중한 양국 커뮤니케이션학 학술 번역서 수용 비교에 나타난 차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원인, 문화적 원인, 번역자의 원인이다. 이 세 가지 원인이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준다. 첫 번째 사회적 원인은 주로 중한 양국의 사회 제도 차이와 사회 발전 정도(사회 배경)의 차이가 번역 수용의 차이를 야기했다는 점을 말해주며. 두 번째 문화적 원인은 양국 학자의 이데올로기 혹은 문화적

관행의 차이가 번역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마지막 번역자의 원인은 모든 번역 과정에 나타나는 차이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주로 번역 수용의 양상과 번역자 신분 구성 및 유학 경험 여부에서 나타났는데 양국 학자들의 번역 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 원인은 번역 태도의 원인으로 간주하며 본고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향후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토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회적 원인을 연구 결과를 통해 재현하면 양국 교과서 번역에서 나타난 차이이다. 2000 년은 중국에서 교과서를 대량 수입한 시기였다. 주로 21 세기에 들어 커뮤니케이션이 신흥 학문으로서 떠오르면서 이론 수용과 학과 구축,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인재 양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2006 년 미디어 경영관리 분야의 교과서가 많아졌는데 주로 사회 경제 발전에 따른 수요로 본다. 한국의 경우 20 세기 초에는 교과서가 많지 않았지만, 2006 년 미디어 관련 다양한 주제의 교재가 생겨났는데 주로 한국이 통신 강국이라는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2007 년에 이론서 몇 권이 수용되어 대학원 교재로 다루어졌다. 이것은 고등 인력 양성 교육 정책의 결과다. 양국의 이런 차이의 배후에는 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번역 수용한 번역서 주제 내용에 따른 분야별 분포는 사회 발전 수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 제도의 차이로 인한 가정 대표적인 차이는 양국

도서 분류에서 나타났다. 특히, 양국의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배치가 이 점을 보여준다(연구방법 부분에서 상세하게 서술함). 중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학은 별도의 학문으로 분류되었고, 사회과학 전반 확대된 것은 아니다. 수용했을 경우에는 학계에서 선을 분명하게 그어 수용했다. 그래서 비슷한 주제에 관한 내용이 많고 세밀하게 수용한 것 같다. 한국은 사회과학 전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 수용의 선택에 있어 분명한 분과의 선을 보이지 않았고 사회와 학문 발전의 수요에 따라 수용했기 때문에 다양하고 새로운 세부 분과를 수용하였다.

두 번째 원인은 문화적 원인으로 양국 학자들의 이데올로기의 차이 때문이다. 선행 연구 부분에서 제시했듯이 번역자의 이데올로기는 번역 작업에 영향을 미치며 번역 선택과 개념어의 번역 수용에서도 나타났다. 이것은 문화적 관행이며 개념어를 다르게 번역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문화적 관습이 바로 중국 학자들이 갖고 있는 '현지화(本土化)' 이데올로기이다. '현지화'를 한국에서 '토착화'라고 한다. 중국에서 '현지화'의 의미는 모든 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고급 외래문명, 문화, 학문은 모두 예외 없이 현지화 과정을 거쳐서 중국화로 만든다. 커뮤니케이션학도 외국에서 수용해 온 학문이므로 이런 과정을 당연히 거치게 되었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communication'이 한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으로 직역하지만, 중국에서 '전파'라고 한다. 물론 중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전파'라는 것은 'communication'단어의 모든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번역 수용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문화 분위기 맞춰 현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모든 외래 문명에 대한 수용에 있어서 현지화 전에 지식의 수용도 '현지화'를 할 수 있는 틀에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양국은 번역 실천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중국 번역자들은 번역에 있어 예로부터 철저히 지켜온 신조가 있다. 바로 '신,달,아(信、达、雅)'원칙이다. 실제로 '신(信)'보다 "달,아(达、雅)"가 앞서있다. 앞에서 말했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번역의 예는 이 점을 충분히 증명한다. 특히 수집했던 중국의 교과서 두 권 정도에서 중국학자가 끝 부분에 중국의 상황을 추가하여 번역서 내용을 이어갔다. 한국에서는 원서에 대해 구조 변동을 한 번역자는 있었지만 원서를 이어서 쓴 경우는 없었다. 이 점에서 중국 학자들은 현지화 이념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 년부터 2005 년 사이에 나타난 모든 역총의 서문에는 "중국 전파학 현지화 과정에서 귀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 지식의 수용을 타산지석으로 본토 학문을 진흥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점도 '현지화'라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뿌리가 중국 학자의 머리속에 깊숙이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 문화의 수용은 먼저 배움을 통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 토착화를 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중국은 수용할 때부터 현지화의 신념을 갖고 수용한다. 보는 이의 입장이 다르면 결과도

크게 다른 법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학은 중국에서 힘차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 연구 현지화'의 목소리가 이미 불거진 것을 감안하면 문화적 원인의 영향도 크다고 본다.

상기 내용에와 함께 현지화 이데올로기의 문화적 원인은 번역자의 번역 태도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 장 1 절에서 언급했듯이 "서구의 문물을 개념화해 수용하는데 언어와 개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개념어가 차이가 나면, 그에 기반한 이론과 형태도 달라진다. 또한, 그 이론과 형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원인과 번역 태도의 원인이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번역 활동이 사회적 활동이면 번역자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 번역자의 차이로 인한 번역 태도의 차이는 번역 수용의 차이를 야기한다. 이러한 차이는 새로운 파생된 차이를 생성하게 되며, 미래의 문화적 차이를 야기하고 중한 양국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장벽이 생기게 된다. 앞에서 제시한 'communication'의 번역도 그렇고, 다른 예를 들면, 중국에서 'Media'는 '매체'라고 번역해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대로 '미디어'라고 쓴다. '매체 문화'와 '미디어 문화'부를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 매체라고 하면은 'mediation'의 뜻만 강조하고 있고 매체의 뜻은 약해 이해하는 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처럼 학문을 수용할 때 문화 차이 때문에 대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서 번역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번역자의 전문적

학술 태도와 완벽한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번역자가 전공 교수인지, 유학 경험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건전성을 고려하는 측면에 번역자가 어떤 목적으로 번역을 수용했는지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상기 세 가지 측면에서 중한 양국의 외래 지식 수용 차이를 야기한 번역 태도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번역 수용 과정도 일종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일대다(一對多) 커뮤니케이션 형식의 과정에 커뮤니케이터, 즉 번역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은 어떤 것을 번역 수용하는지는 번역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총이 있는 경우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본고 5 장에서 설명했듯이, 중한 양국의 번역자 상황이 많이 다르다. 다시 양국의 역자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80.17%의 전공교수가 번역 작업에 투입되었지만, 중국은 51.05%에 불과하였다. 커뮤니케이션학 전문가인지 아닌지, 교수인지 아닌지, 이 학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학문의 입장에서는 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전공 교수와 같이 학문에 권위적인 신분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번역한 학술서의 전문성이나 엄밀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자월: "불재기위(不在其位), 불모기정(不謀其政) [5] 이다." 또한, 중국의 속어는 "隔行如隔山(격행여격산) [6] "도 있다. 이는 이 한 사람이 처한 위치의

[5]불재기위(不在其位), 불모기정(不謀其政):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 그 일에 대하여 도모하지 않다.
[6]隔行如隔山 (격행여격산) : 하는직종 다르면산에가로막힌듯서로가 이해하기 어렵다.

중요성과 직종이 다르면 하는 일도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본고에서 연구한 학술서의 번역 작업은 더욱 그러하다. 양국의 역자 신분 구성이 다른 상황에서 번역 수용 과정에 있어 개념어에 대한 번역 수용에 양국이 차이가 없지 않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번역자의 신분 구성은 양국 번역 태도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유학 경험 여부도 개념어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유학 경험 여부는 본고의 중요한 지적 번역 태도의 차이를 야기한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어서 중국에서 진지안빈과 왕샤안샤안(金兼斌，王珊珊)(2005)이 함께 연구한 "글로벌화와 본토화 틈새에의 생존—'해귀[7]' 커뮤니케이션 학자의 연구 상태에 대한 탐색(全球化與本土化夾縫中的生存一對'海歸'傳播學者研究狀態的一次探索性研究)"연구 결과와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000년 전후 중국 정부가 '해귀'규모가 고점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중국 인사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유학생 귀국 인원은 연평균 속도는 13%를 상회 하고 있으며, 그중 90% 이상이 박사 혹은 석사 학위를 갖고 있다(梁意欣、邵武傑，2002). 진지안빈과 왕샤안샤안(金兼斌，王珊珊)(2005)의 연구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북경에 있는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귀 신문전파학' 학자 7 명과 비교하기

[7]海歸(해귀): 중국에서 해외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유학생들을 "해귀"라고 한다. 한국에서 해외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해외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귀국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 '해귀'라고 하겠다.

위해 다른 사회과학 학문인 정치학, 역사학, 철학 각 3명, 총 10명(미국 4명, 캐나다 2명, 영국 1명, 홍콩 3명)을 전화 인터뷰 혹은 면담의 방식으로 "1. 유학 경험은 어떤 비교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지 2. 해귀학자(유학파학자)는 연구진행 과정에서 어떤 여러움과 도전에 직면하는지 3. 해귀학자는 연구 전략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녹음 방식을 통해 400 명 가량과 인터뷰를 했다. 2, 3 번 문제는 본고와 큰 연관이 없으므로 연구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문제 1. 유학 경험은 어떤 비교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 부분에서 "해귀들은 유학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중국 현지 학자보다 학문적인 비교우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비교 우위는 바로 국제적인 시야 부분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첨단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 핫 이슈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선진국은 연구 방법、관점、입장 등이 다각화되어 있다. 그리고 해외 원서를 읽기 때문에 국내 학자보다 자료와 정보를 즉각적으로 더 많이 파악하게 된다.""국내의 연구는 거시적인 내용이 많고 외국에서는 지도 교수들이 작은 문제를 깊게 연구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국내 이슈에 대한 과제들이 많아 성과도 미미하며, 인기 화제는 첨단 학술 연구가 아니다".

이상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 "해귀들은 해외의 선진국 유학을 통해 현지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시야와 생각을 넓혔다. 또한, 그들은 이종 학술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다른 문명을 접촉하는 과정에 새로운 사고방식과 학술 이념을 받아들이고 연구 방법과 관점이 다각화 되어있으며 이론에 대한 진술이 보다 포괄적이다. 학문적 학술 연구의 창작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규범성과 엄밀성에서도 해귀 학자들이 더 많은 비교 우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국내 학자보다 풍부한 연구 자료도 얻을 수 있어 국제 학술계와의 교류 능력을 갖추게 된다" 는 연구 결론을 내렸다.

진지안빈과 왕샤안샤안(金兼斌 , 王珊珊)(2005) 연구를 참고로 문제 1 의 결론은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는 유학 경험 없는 번역자보다 더 풍부하고 다원적인 학술 원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첨단 학술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것은 본고의 연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본고의 연구 결과에서 한국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는 77.69%로 중국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 23.77% 보다 거의 3 배정도 많았다. 또한, 한국의 학술 번역서들이 미치는 '나라별' 영향 역시 중국보다 다양하다. 한국의 학술 번역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내용의 분과'는 중국보다 다양하고 새로웠으며 사회과학 분야가 많았다. 따라서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는 유학 경험이 없는 번역자보다 원서의 선택에 있어 보다 다양한 주제를 선호하고 최신 혹은 첨단 학술 주제를 찾아낼 수 있다. 본고의 연구문제 1 의 연구 결과는 바로 이 문제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고의 연구 문제 3 의 번역 태도에 관한 연구 부분에서도 이 문제를 반영한다. 중국의 번역자는 기본 지식을 많이 소개하는데, 한국의 번역자는 심화 지식을 많이

수용했다. 이점 역시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가 유학 경험 없는 번역자보다 외래 지식 수용에 있어 기본 지식이나 이슈보다 첨단 지식이나 작은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내용을 선호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번역자의 유학 경험 여부는 연구문제 1 과 3 에서 탐구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번역 태도의 차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이 점에서 양국의 유학생이 번역 수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양국의 학술 환경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3. 결론

이상 세 가지 원인은 중한 양국 커뮤니케이션학의 수용 양상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추론하여 제시한 것이다. 추론을 통해 중한 양국의 외래 문물의 수용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양국 교류를 꾸준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차이를 알아보고 분석하면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중한 양국의 수용 상황 및 수용의 차이 분석 그리고 원인 분석을 모두 제시했지만, 어느 국가가 더 나은 번역 수용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 본고는 서로 대조할 수 있는 '거울'을 제공하려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번역 수용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분석하기 전에 번역 태도 문제에 대한 비교적 입장에서 지적할 점이 수 있을 거 같다.

유학 경험이 있는 번역자는 외국의 선진 사회 제도 환경에서 살아보았고, 자국 사회의 단점 및 미래 발전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학술적 입장에서도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는 외국의 선진 이론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가 높고, 유학 경험 없는 번역자 대비 번역 수용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또한, 두 가지 문명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된다. 유학 과정에 외국 문명과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적 충돌이 생긴다면 자성과 비교의 관점에서 자국 문화의 장단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디에 개선이 필요한지도 알아볼 수 있다. 특히 21 세기 글로벌화 인재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는 번역 수용 과정에서 그 주도적 역할이 더욱 분명해졌다. 결론적으로 본고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자기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유학 경험 없는 번역자보다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가 보다 적절한 번역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유학 경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전반 학술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 다원화 관점에서 번역 수용 선택을 할 수 있다. 최신 학문의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국 커뮤니케이션 학문 지식 지도를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적인 강점이 있어 더욱 정확한 전문 용어의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뿐더러 대조한 표현이 도착국의 언어에 없을 경우에 적절한 창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수용을 이루는 과정에서 유학 경험 없는 번역자보다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

중국 학자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지기연, 지기소이연(知其然 , 知其所以然)". 즉 "그러함을 알고, 왜 그러함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번역자에게, 그리고 지식의 수용 과정에 모두 적용된다. 특히 유학 경험이 있는 번역자라면 왜 그러함도 알고 있는 커뮤니케이터로서, 학과 구축을 위한 학문 수용 과정에서 유학 경험 없는 번역자보다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우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현지화 과정에 유학 경험 있는 번역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필자는 본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역을 접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양국의 지식 식민성에 문제가 있는지, 공동번역과 개인 번역의 질에서 어떤 번역 방법이 더 좋을지 등이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유학생의 수가 많아졌지만, 학술 번역 수용 및 창작에 투입된 사람이 적어졌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주의가 점점 심화된 요즘 사회에서 유학생들은 조국을 위하기보다는 본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유학을 선택한다. 중국의 해귀보고서에도 '유학생들의 취업 영역 1 위를 차지하는 업종은 금융업, 2 위는 금융서비스업'이라는 통계 결과가 있다. 따라서 진정한 유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유학의 목적은 선진국으로부터 이론 지식을 배워 귀국 후 자신이 배운 지식을 자국의 사회 환경에 적용하고 발전시켜, 더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21 세기에는 유학의 목적이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외에도 진정한 수용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할 거 같다. 특히 선진 지식에 대한 번역 수용은 사회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하며, 지식의 식민 문제, 지식의 편향성 문제가 존재한다. 자국의 문화적 이데올로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행하기 전 심사숙고 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수용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며, 외래 지식 번역 수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김순미.(2014).번역사의 지위와 가시성을 중심으로 본 역자후기의 내용과 기능. *번역학연구, 15*(3), 33-81.

김중섭.(2013).20 세기 초기 중국의 일본식 한자번역어 수용에 관한논쟁. *중국학연구회 학술발표회*, 123-129.

박미정.(2013).이데올로기 프레임으로 재생산되는 뉴스담론과 번역에 관한 일고찰.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68-75.

성초림.(2013).문학번역 평가의 시대, 무엇이 좋은 번역인가? *세계문학비교연구, 42*, 173-192.

김진두, 김창옥.(2012).번역 (飜譯) 출판 (出版) 과 에이전시에 대한 연구 (硏究). *출판잡지연구, 20*(1), 95-113.

양세욱. (2012).동아시아의 번역된 근대. *인간· 환경· 미래*, (9), 63-91.

김광재.박종구.(2011).“저자 동시 인용 분석 방법을 이용한 혁신 확산 연구의 지적 구조—커뮤니케이션학 영역을 중심으로”)

이상길.(2011).학술번역과 지식수용, 혹은 “이론은 어떻게 여행하는가?”. *언론과 사회, 19*(4), 232-289.

송연석.(2011).이데올로기가 제도적 번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번역학연구, 12*(1), 145-165.

이충훈.(2010).18 세기 프랑스에서 “철학서적” 의 제작과 유통의

양상. *서강인문논총*, *29*, 303-336.

김진아(2009)女性主义的发展对翻译实践的影响 - 以韩·中为例 -

이신철 역, (2009) 「칸트사전」. 비판.

김도희. (2008).한중문화교류의현황과사회적영향. *현대중국연구*, *9*(2), 313-341.

鄭春. (2008). 具有留學背景的中國現代作家的文學翻譯—以魯迅爲中心. *중국어문논역총간*, *23*, 105-113.

도최진.(2008).중한번역의이데올로기조정에대한소고.

이혜승. (2008).번역과반역의경계고찰. *노어노문학*, *20*(4), 121-150.

김경정.(2007).일한 문학번역의 독자지향적 경향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6-270.

朴光海, (2007) . 한중 문화교류의 현황과 사회적 영향. *每周韓國 2006*

양승목.(2005).초창기 한국 언론학의 제도화와 정체성 변화. *커뮤니케이션 이론*, *1*(1), 1-34.

양승목. (1999).[21 세기 언론학 연구의 새로운 좌표와 과제] 디지털 시대의 언론학. *언론정보연구*, *36*, 51-57.

《한국출판연감》 2008~2010

侯立静, (2014). 论译者身份的两极性. *文学教育: 中*, (1), 83-83.

原貞, (2014). 论翻译的三大操控因素——以杨必译本《名利场》为例. *肇庆学院学报*, *3*, 012.

郑春, (2013). 留学背景与新文学的标志性创作. *山东社会科学*, (007), 94-100.

陈志勇, (2010). 译书与中国近代化. *国学*, (3), 26-29.

周永平, (2008). “論留學經歷與中國文學的現代性”

赵军峰, (2007). 翻译家研究的纵观性视角:梁实秋翻译活动个案研究. *中国翻译*, *28*(2), 28-32.

韓子滿, (2006). 应用翻译: 实践与理论研究. *中国科技翻译*, *18*(4), 48-51.

孙昌坤, (2006). 译作序言跋语与翻译研究. *四川外语学院学报*, *21*(6), 126-128.

徐培汀. (2006). *中国新闻传播学说史, 1949-2005*. 重庆出版社.

王玉括. (2005). 译者的身份建构. *天津外国语学院学报*, *12*(5), 40-46.

陈力丹. (2005). 中国传播学研究的历史与现状. *国际新闻界*, (5), 20-23.

黄旦, &丁未. (2005). 传播学科 “知识地图” 的绘制和建构——20 世纪 80 年代以来中国大陆传播学译著的回顾. *现代传播: 中国传媒大学学报*, (2), 23-30.

金兼斌, &王珊珊. (2005). 全球化与本土化夹缝中的生存——对 “海归” 传播学者研究状态的一次探索性研究. *新闻与传播研究*, *12*(3), 76-80.

徐岚, 许迈进(2003). 中韩研究生教育国际化的比较研究. *比较教育研究*, *11*, 012.

许欣. (2003). 论中国大陆传播学专著的生态状况. *现代传播*.

孫致禮, (2002)中国的文学翻译:从归化趋向异化

廖圣清. (1998). 我国 20 年来传播学研究的回顾. *新闻大学*, *4*, 24-30.

吕俊. (1997). 翻译学——传播学的一个特殊领域. *外国语*, *2*.

钱存训, &戴文伯. (1986). 近世译书对中国现代化的影响. *文献*, *2*, 181.

Wolf, M., & Fukari, A. (2007).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Vol. 74). John Benjamins Publishing

부록

한중 번역서 리스트

한국 번역서 리스트

연도	번역서명	원서명
2000	일본 매스 커뮤니케이션사	日本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史
2000	텔레비전과 공중 : 시청자 토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Talk on Television: Audience Participation and Public Debate
2000	인터넷 연구방법 : 쟁점과 사례	Doing Internet Research: Critical Issues and Methods for Examining the Net
2000	감성과 커뮤니케이션	(The)Communication of Emotion
2000	디지털 혁명과 매스미디어 : 매스컴 빅뱅	マスコミビッグバン
2000	전자미디어 비평	Electronic Media Criticism : Applied Perpectives
2000	미디어 정치 효과 : 비개인적 영향력	Impersonal influence: How Perceptions of Mass Collectives Affect Political Attitudes
2000	영상 시대의 미디어 스포츠	역자 편역 원서제목이 없음
2001	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2001	코무니콜로기 :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Kommunikologie
2001	미디어 디베이트 :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슈들	Media debates: issues in masscommunication
2001	위험커뮤니케이션 : 우리가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Medien und Risikogesellschaft
2001	매스커뮤니케이션 개론 :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Media today : (An)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
2001	커뮤니케이션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200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Ongoing Crisis Communication: Planning, Managing, and Responding
2001	미디어 방정식 : 컴퓨터, 텔레비전, 뉴미디어를 실제 사람과 장소처럼 다루는 방법	The Media Equation: How people treat computers, televisions, and new media as real people and places
2001	미디어의 실제 : 커뮤니케이션학 입문	Die Wirklichkeit der Medien. Eine Einf ührung in die Kommunikationswissenschaft
2001	수용자 연구 : 수용자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	Studying Audiences: (The) shock of the real
2001	BBC 와 CNN : 미디어 조직의 경영	Inside the BBC and CNN: managing

		media organization
2001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Analyzing Media Messages
2001	미디어에서 리얼리티란 무엇인가	(La) realite dans les medias
2001	커뮤니케이션 모델 :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Communication Models: for the study of mass communication
2001	미디어와 민주주의	Médias et démocratie: la dérive
2001	인터넷과 텔레비전 : 전환기의 도전과 대응	(The)Internet Challenge to Television
2001	영국의 디지털 방송정책과 효과	A Study to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Government Policies Towards Digital Television
2001	언론과 권력	渡邊恒雄メディアと權力
2001	독일 언론학 연구	편역 논문집 원제목 없음
2001	환경저널리즘 : 언론보도를 위한 환경운동의 이슈 메이킹 전략	Media, Culture and the Environment
2001	e-브리타니아 : 커뮤니케이션 혁명	E-britannia: The Communication Revolution
2002	디지털 모자이크 : 인간은 디지털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가?	Digital Mosaics: the aesthetics of cyberspace
2002	세계화와 미디어 연구 : 탈서구적 패러다임을 찾아서	De-Westernizing media studies
2002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제 4 판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2002	(매스커뮤니케이션의)역사 : 6 단계 정보혁명	A History of Mass Communication: Six Information Revolutions
2002	텔레비전과 여성문화 : 대중문화의 정치학	Television and women's culture: the politics of the popular
2002	텔레비전 대통령후보 토론과 공공정책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nd public policy
2002	온라인 커넥션 :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공간	Online Connections: Interne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002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 理解媒介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
2002	독일 방송 통일 : 동서독은 어떻게 방송시스템 통합을 이루었는가?	Deutshland einig rundfunkland?
2002	미디어 리터러시 : 미국, 영국, 캐나다의 새로운 미디어 교육 현장 보고	Media Literacy
2002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 : 지구촌 텔레비전의 게임, 여가 그리고 정신	Games in The Global Village: a 50-nation study of entertainment

	스포츠	television
2003	미디어 소유와 집중	Media Ownership
2003	매체의 현실 구성론 : 현대 미디어와 현실의 재구성	Communication Unreality: modern media and the reconstruction of reality
2003	인터넷 대격변	Internet Upheaval: raising questions, seeking answers in communications policy
2003	밤과 여름 : 프랑스 TV 의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	La nuit et l'été: rapport sur la culture à la télévision
2003	미디어 비즈니스	(The)Business of Media: Corporate Media and the Public Interest
2003	스포츠, 미디어를 만나다 : 미디어 스포츠의 이해	편역 원제목 없음
2003	위험 보도론 : 매스미디어는 사고, 질병, 재해, 재난을 어떻게 보도하는가?	Reporting on Risk: How the Mass Media Portray Accidents, Diseases, Other Hazards
2003	전환기의 미디어 교육	Mass Media Education in Transition: Preparing for the 21st
2004	미디어 담론 : 대중매체와 담론의 프레임 분석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2004	커뮤니케이션 이론 : 연구방법과 이론의 활용 제 4 판	Communication Theories: Orgins, Methods, and Uses in Mass Media
2004	미디어 연구 방법 : 수용자, 반응 및 영향 측정	Media Research Methods: measuring audience, reactions and impact
2004	TV 속의 사회, 사회 속의 TV	Meaning of the Medium: perspectives on the art of television
2004	미디어 스포츠	Mediasport
2005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연구 방법	Historical Methods in Mass Communication
2005	아시아의 인터넷, 정치, 커뮤니케이션	Rhetoric and Reality: the internet challenge for democracy in Asia
2005	위험 보도와 매스커뮤니케이션	편역
2005	전화의 재발견 : 전화를 매개로 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電話
2005	뉴미디어 백과사전	Encyclopedia of New Media: an essential reference to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2005	미디어 파워	Media and Power
2005	미디어의 경쟁과 공존	Media Competition and Coexistence

2005	지구촌 : 21 세기 인류의 삶과 미디어의 변화	The Global Village
2005	미디어 효과의 기초	Fundamentals of Media Effects
2005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跨文化传播	異文化間コミュニケーション入門
2005	오늘의 신문을 말한다	いま　新聞を考える
2005	공영방송 :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분쟁과 정치학	Public Television: politics and the battle over documentary film
2006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idea
2006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예술과 법률의 〈최신〉 지식	Encyclopedia of New Media
2006	우리 시대의 디지털 거인들	Encyclopedia of New Media
2006	디지털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해킹의 〈최신〉 지식	Encyclopedia of New Media
2006	디지털 미디어	Encyclopedia of New Media
2006	미디어 문화론(통론)	メディア文化論
2006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	Children, adolescents, and the media
2006	대중매체의 현실	Die Realität der Massenmedien
2006	다매체 시대 미디어 윤리의 실천 : 미디어 윤리,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Déontologie des médias
2006	매스미디어 조사방법론	Mass Media Research
2006	미디어와 폭력 : 그에 관한 11 가지 신화	(The)11 Myths of Media Violence
2006	조직 커뮤니케이션 : 접근과 과정	Organization Communication
2006	위험보도 : 저널리즘과 과학적 사실의 충돌	Reporting on Risks: The Practice and Ethics of Health and Safety Communication
2006	저널리즘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만드는가?	(The)Conversation of Journalism
2006	디지털 시대 공영 방송의 책무 수행 평가	Javnost-the Public: Auditing Public Broadcasting
2007	동굴 벽화에서 만화까지 : 그림으로 읽는 커뮤니케이션사	From Cave Painting to the Comic Strip
2007	(78 개의 최신 사례로 보는) 미디어 윤리	Media Ethics: cases and moral reasoning
2007	커뮤니케이션 이론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2007	현대 정치 커뮤니케이션	Handbook of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2007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다	La communication selon Bourdieu: jeu social et enjeu de société
2007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2007	현대언론사상사 : 밀턴에서 맥루한까지	From Milton to McLuhan: the ideas behind American Journalism
2007	그린 잉크 : 환경 저널리즘 입문	Green Ink: An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Journalism
2007	프레이밍과 공공생활 : 미디어와 사회현실에 대한 이해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2007	미디어, 스포츠 그리고 사회 : 스포츠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통론)	Media, Sports, and Society
2007	유럽의 텔레비전 방송 : 규제, 정책, 독립	Television across Europe: regulation, policy, and independence
2007	디지털 시대의 공영방송 : 유럽 공영방송제도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전망	Safeguarding the Future of the European Audiovisual Market
2008	블로그와 시민권 그리고 미디어의 미래	Blogging citizenship and the future of media
2008	늙어가는 미국 : 미디어, 노인, 베이비붐 (통론)	Mass Media an Aging Population and the Baby Boomers
2008	인간 커뮤니케이션, 비서구적 관점	Non-western Perspectives on Human Comunica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2008	미디어와 일상 : TV, 라디오, 위성 TV 의 시작과 근대 사회의 일상 연구	Media and Everyday Life in Modern Society
2008	제국과 커뮤니케이션(컴 통론)	Empire and Communications
2008	미디어 생태학 사상 : 문화, 기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Perspectives on Culture,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2008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 구하기 : 신문 경영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The Vanishing Newspaper: Saving Journalism in the Information Age, Updated Second Edition
2008	저널리즘과 선진 민주주의 : 영국 · 미국 · 독일 · 이탈리아 · 프랑스 · 일본 미디어 시장의 현재와 미래	Future of journalism in the advanced democracies
2008	온라인 뉴스 : 저널리즘의 신세계	Online News: journalism and the internet
2008	언론과 진실, 이상한 동거	Journalism and Truth
2008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가는 길 : 시장과 공익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Switching to Digital Televion
2008	지역공동체 신문	Community Journalism: relentlessly local

2008	저널리즘 민주주의에 약인가 독인가?	DEMOCRACY AND THE NEWS
2009	위기 커뮤니케이션 : 위기는 어떻게 기회가 되었나?	Effective crisis communication: moving from drisis to opportunity
2009	모바일 미디어와 새로운 인간관계 네크워크의 출현 : 휴대전화는 사회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New Tech, New Ties: How Mobile Communication Is Reshaping Social Cohesion
2009	(첫눈에 반한)커뮤니케이션 이론	First Look At Communication Theory
2009	하이퍼텍스트 3.0 : 지구화 시대의 비평이론과 뉴미디어	Hypertext 3.0: Critical Theory And New Media in a Global Era
2009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Why Study the Media?
2009	미디어 경제 경영론 : 이론과 방법	Handbook of Media Management and Economics
2009	매스미디어 연구방법론 8 판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2009	매체이론	Medientheorien Zur Einführung
2009	미디어 스포츠의 파워	Power Play: Sport, the Media, and Popular Culture
2009	여론조작 위기의 시대	パロティングが招く危機 ：：メディアが培養する世論
2009	세계를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 세계사회와 네트워크의 사회적 영향	Weltkommunikation
2009	국제 커뮤니케이션 : 연속성과 변화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ntinuity and Change
2009	미디어 정책 개혁론 : 21 세기 미국의 미디어 정치학	The Political Economy of Media: Enduring Issues, Emerging Dilemmas
2009	미디어와 건강 : 미디어에 비친 건강과 질병을 진단하다	Media and Health
2009	뉴스통신사 : 비둘기에서 인터넷까지	News Agencies: From Pigeon to Internet
2009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중국 번역서 리스트

연도	번역서명	원서명
2000	媒体伦理学 :案例与道德论据	Media Ethics: Cases and Moral Reasoning
2000	国际传播：全球都市的历史，冲突及控制	International Communication: History, Conflict and Control of the Global Metropolis
2000	组织传播：第 2 版	Organazitonal Communicaiton: Approaches and Processes
2000	传播研究方法 :策略与资料来源 第四版	Communication Research: Strategies and Sources
2000	大汇流 :整合媒介信息与传播	Convergence: Integrating Media, Information & Communication
2000	媒介形态变化：认识新媒介	Roger Fidler: Mediamorphosis: Understanding New Media
2000	大众传播研究 :现代方法与应用	Mass Communication Research: Contemporary Methods and Applications
2000	传播理论 :起源、方法与应用	Communication Theories: Origins, Medthods and Users in Mass Media
2000	传播政治经济学 第 2 版	The Political Econnomy of Communication
2000	多媒体时代与大众传播	二十一世紀のマスコミ
2000	组织中的传播和权力：话语，意识形态和统治	Communication and Power in Organizations: Discourse, Ideology, and Domination
2000	大众传播学：影响研究范式	Mass Communication : An effects approach
2000	理解媒介：论人的延伸	Understanding Media
2000	麦克卢汉精粹	Essential Mcluhan
2000	媒介事件：历史的现场直播	Media Events: The Live Broadcasting of History
2000	关于电视	Sur la télévision
2001	第二媒介时代	The Second Media Age
2001	认识媒介文化 :社会理论与大众传播	Understanding Media Cultures: Social Theory and Mass Communication

2001	世界传播与文化霸权 :思想与战略的历史	La Communication-monde
2001	媒体等同 人们该如何像对待真人实景一样对待电脑、电视和新媒体)	The Media Equation
2001	数字麦克卢汉 信息化新纪元指南	Digital Mcluhan: A guide to the information millenninm
2001	新闻道德评价	Groping for Ethics in Journalist
2001	全球媒体 :全球资本主义的新传教士	The Global Media
2001	认同的空间 : 全球媒介 , 电子世界景观和文化边界	Space ig Identity
2002	今日媒介 :信息时代的传播媒介	Media Now: Communication Media in the Information Age
2002	公众舆论	Public Opinion
2002	传播学史 :一种传记式的方法	A History of Communication Study- A Biographical Approach
2002	传媒的历史与分析 :大众媒介在加拿大	The mass media in canada
2003	全球传播	Global Communication
2003	帝国与传播	Empire and communications
2003	传播的偏向	The bias of communication
2003	交流的无奈 : 传播思想史	Speaking into the air: a histry of the idea of communication
2003	意义的输出 :《达拉斯》的跨文化解读	The export of meaning: cross-cultural readings of Dallas
2003	传播生态学 控制的文化范式	An Ecology of Communication: Cutural Format of Control
2003	媒体奇观 :当代美国社会文化透视	Media Spectacle
2003	美国人和他们的新闻	The News About the News: American Journalism in Peril
2003	作为话语的新闻	News as discourse
2003	理解电视 电视节目类型的概念与变迁	Television: a media student's guide
2004	至关重要的新闻 电视与美国民意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2004	媒介研究的进路	Approaches to Media

2004	国际传播 延续与变革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ntinuity and change
2004	关键概念 传播与文化研究辞典	Key concepts in communication and cultural
2004	富媒体穷民主 :不确定时代的传播政治	Rich Media, Poor Democracy
2004	网络研究 数字化时代媒介研究的重新定向	Web studies : rewiring media studies for the digital age
2004	寻找方法 焦点小组和大众传播研究的发展	The Search fot a Method: Focus Group and the Development of Mass Communication Research
2004	获取信息 新闻、真相和权力	Getting the Message:News, Truth and Power
2004	跨文化传播	Communicaiton between cultures
2004	大众传播效果研究的里程碑	Milestones in Mass Communication Research: Media Effects
2004	大众传播动力学 :数字时代的媒介	The dynamics of mass communication: Media in the digital age
2004	人类传播理论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2004	理解传媒经济学	Understanding Media Economics
2004	大众传播理论 基础、争鸣与未来	Mass communicaiton theory : foundations , ferment and future
2004	现代传媒史	Gendai Media Shi
2004	电视受众研究 文化理论与方法	Watching Television Audiences: Cultural Theories and Methods
2004	电视与日常生活	Television and everyday life
2004	媒体垄断 第六版	The Media Monopoly
2004	媒介论争 19 个重大问题的正反方辩论	Media Debates: Great Issues for the Digital Age
2004	电子媒介经营与管理	Electronic Media Management
2004	媒体文化 :介于现代与后现代之间的文化研究、认同性与政治	Medie Culture
2004	视听率分析 受众研究的理论与实践	Ratings Analysis: The Theory and Practice of Audience Research
2005	电视、受众与文化研究	Television, audiences and culture studies

2005	思考电视	Thinking through television
2005	报纸的良知 :新闻事业的原则和问题案例讲义	The conscience of the newspaper: A case book in principles and problems of journalism
2005	解放·传媒·现代性：关于传媒和社会理论的讨论	Emancipation, the media, and modernity-arguments about the media and social theory
2005	传媒社会学	Media power A sociological introduction
2005	媒介、传播、文化：一个全球性的途径	Media ,communicaiton ,culture : A global approach
2005	媒介研究：文本 , 机构与受众	media studies : texts , institutions and audiences
2005	电子媒介经营管理：第 2 版	Management of electronic media
2005	新媒体技术 :文化和商业前景	New media technology: cultural and commercial perspective
2005	媒介经济学 :经济学在新媒介与传统媒介中的应用	Media Economics : applying economics to new and traditional media
2005	大众传播概论 :媒介认知与文化 第三版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 media literacy and culture.
2005	传媒所有权	Media ownership
2005	唯系民主？ :西方政治与新闻客观性	Sustaining democracy ? Journalism and the politics of objectivity
2005	西方媒介史	Une Histoire des medias, des origines a nos jours
2005	英国新闻史	Power without responsibility: press, broadcasting and the internet in Britain
2005	大众媒介研究导论：第 7 版	Mass medie research : A introduction
2005	传播与社会影响	On communication and social influence
2005	言论自由的反讽	The irony of free speech
2005	报业的活路	SHINBUN WA IKI NOKORERU KA
2005	新闻业与新媒介	Journalism and New Media
2006	媒介与文化研究方法	How to do media and culture studies
2006	传媒效果概论	Fundamentals of Media Effects

2006	电子媒体导论	Broadcasting, Cable, the Internet, and Beyond: An Introduction to Modern Electronic Media
2006	媒体与权力	Media and Power
2006	麦奎尔大众传播理论 :第 5 版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2006	受众分析（无法传递驿后记 220）	Audience Analysis
2006	媒介伦理学：问题与案例：第 4 版	Media Ethics: Issues Cases
2006	媒体与娱乐产业	The Media and Entertainment Industies
2006	传媒管理学导论	The Economics and Financing of Media Companies
2006	媒介与权势：谁掌管美国	The Powers That Be
2006	传媒政策与实务	Media Power: Professionals and Policies
2006	媒体考古学	Archäologie der Medien
2006	媒体职业道德规范与责任体系	
2006	数字电视与制度变迁 :美国与英国的数字电视转换之路	New Television, Old Politics: The Transition to Digital TV in te United States and Britain
2006	数字电视内容与经济分析	The Economics, Technology and Content of Digital TV
2007	正在消失的报纸 :如何拯救信息时代的新闻业	The Vanishing newspaper: Saving Jouranlism in the Information Age
2007	媒体与社会 批判的视角	Media and Society: Critical Perspectives
2007	传播理论导引 分析与应用 第 2 版 译者后记无法传递	Introducing Communication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
2007	传播	La Communication
2007	传播的世界化	La mondialisation de la communication
2007	传媒	les médias
2007	批判的传播理论 权力媒介社会性别和科技	Critical Communication Theory: Power, Media, Gender and Technology

2007	媒介生态学	The Media Ecology Tradition: Perspectives on culture,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2007	道德与新闻	Ethics and Journalism
2008	传媒、计算机、实在性：真实性表象和新传媒	Medien, Computer, Realität
2008	媒介与主权	Media and Sovereignty
2008	媒介效果研究概论：第 2 版	Media Effects Research: A Basic Overview
2008	媒介经济学：理论与实践（第 3 版）	Media Economics: Theory and Practice
2008	传播学批判研究：美国的传播、历史和理论	Communication History and Theory in America
2008	传播思想	La pensée communicationnelle
2008	传播研究方法导论 第三版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Research
2008	传播学简史	Histoire des théories de la communication
2008	传播研究导论：过程与符号（第 2 版）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by John Fiske (Second Edition)
2008	传播！11 版	Communicate! (11th edition)
2008	议程设置：大众媒介与舆论	Setting the Agenda: The Mass Media and Public Opinion
2008	一天给我一桩谋杀案 :英国大众传播史	A History of Mass Communication in Britain
2008	新闻文化	News Culture (Stuart Allen)
2008	媒体、市场与民主	Media, Markets, and Democracy
2008	重组话语频道 :电视与当代批评	Channels of Discoure, Reassembled: Televis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
2008	西方新闻传播学名著选译	합본
2009	全球网播 :新媒介商业运营模式	Webcasting Worldwide: Business Models of an Emerging Global Medium
2009	传媒是什么：新实践·新特质·新影响	Que sont les médias?: pratiques, identités, influences
2009	媒介·社会：产业、形象与受众	Media/Society: Industries, Images, and Audiences

2009	中介化	Mediated-how the media shapes your world and the way you live in it
2009	传播革命	Communicaiton revolution-critical junctures and the future of the media
2009	传播网络理论	Theories of communication networks
2009	娱乐至死 / 童年的消逝	Amusing Ourselves to Death/The Disappearance of Childhood
2009	传播概念．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2009	传播概念． Pornography	Pornography
2009	传播概念． Information	Pornography
2009	传播概念． Agenda-Setting	Pornography
2009	大众传播通论 5 版	Introduction to Media Communication
2009	媒体与信息伦理学	Ethics and Values in the Information Age
2009	传媒经济学：市场、产业与观念	Media economics: Understanding markets, industries and concepts
2009	媒介研究技巧	Media Research Techniques(Second Edition)
2009	传播理论史：一种社会学的视角	Sociologie: de la communication et des médias
2009	传媒殖民政治	Mediokratie: Die Kolonisierung der Politik durch die Medien
2009	传通影响力：操控、说服机制研究	L'art d'influencer: analyse des techniques de manipulation
2009	美国新闻史：大众传播媒介解释	The Press and America: An Interpretive History of The Mass Media
2009	发掘新闻：美国报业的社会史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2009	数字媒介社会	SHINPAN DIGITAL MEDIA SHAKAI
2009	创意工厂：意大利传媒市场	La fabbrica delle idee: il mercato dei media in Italia
2009	从狄德罗到因特网：法国传媒史	Histoire des médias: de Diderot à Internet
2009	视像的霸权	Visual Hegemonies
2009	公共新闻事业的理念	The Idea of Public Journalism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eption of Communication Academic Books between China and Korea

—— Focus on the translators' attitude

HANXING LI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na and Korea are two neighboring countries, which share the same 'Chinese Characters' in history and have mutual exchanges in many fields, including the largest numbers of exchange students between each other. Even though, there are still many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 Korean researcher posited that the "East Asian Modern History" is "translated modern" because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i.e. China, Korea, and Japan) constructed their social order by learning from the west through their own translated books. Nowadays, China and Korea have many differences in their cultures and societies. According to the speculation, the reception of knowledge by translating the western academic books may cause

the differences in "translated modern". Therefore, the distinct differences in the knowledge reception processes between China and Korea, may explain the differences in their own "translated modern"

In this study, we used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the translated communication academic books that published in China and Korea. Because of the large differences in societies, cultures and system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is comparative study could only implement in a limited amount of academic books. The conduction of the study is three stepped. First, we try to understand the overall situation of knowledge reception (including reception years and countries) in the Communication Science Department in China and Korea. Second, we will do a specific analysis on translators' forewords to elucidate about from whom, how and why they did the knowledge reception. Third, we will compare the translators in their positon and whether had studied abroad experience. The last step helps us get to konw the translators' situ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Through comparing two countries' translators who had studied abroad experience, the study will clarify those translators' contributiveness in knowledge reception; then, try to understand why they would not do more translation work in future.

Keywords: knowledge reception, comparative study, cultural difference, translated communication academic books, student study abroad.

Student Number: 2013-22436